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5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48 ~ 849 1982년 6월 11일(금) & 12일(토) 19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ne 11, & 1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모국어교육에 쐐기

「온」주 정부서 입법화거부

토론토 교위는 『정규수업』 다짐

온타리오주정부는 토론토시교육위원회가 제3국어(모국어)를 정규수업과목으로 채택하자는 법제화 요청을 기각했다.

베티·스티븐슨 문교장관은 9일 토론토시교육위원회 밥·스펜서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동 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한 건의안 자체가 교육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슨장관은 "토론토시교위가 산하학교 학생들의 언어배경에 민감히 대처,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경하할 만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현존하는 교육법의 테두리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정부는 제3국어(모국어)를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론토시교위는 특정 에트닉학생 수가 일정수준에 오르는 학교는 정규수업시간에 그리스·이태리·폴투칼어등 35개의 에트닉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정부에 건의했다.

스티븐슨은 서한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영어나, 불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을 보장하는 것이 학교당국의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규수업후의 모국어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년에 64개학교가 7만8천명 학생에게 45개국어를 가르쳤다고 밝혔다.

토론토시교위는 주정부가 건의안을 기각하더라도 정규수업시간을 30분 연장하고, 모국어교육을 할 수 있게 수업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미 문교부는 내년 정규수업시간을 30분 더 연장하기로 결정, 토론토시교위의 30분 수업연장은, 총1시간 수업연장이 된다.

토론토의 선생들은 이같은 수업연장안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방과후 특별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반대했다.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까지 진격

전투기 150대가 공중전

(베이루트)9일 레바논의 베카계곡 상공에서는 90대의 이스라엘제트기와 60대의 시리아기가 중동전사상 최대규모의 공중전을 전개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23대의 시리아군소속 소련제 미그 23기 및 21기를 격추하고, 대공미사일등을 파괴시켰으나, 이스라엘 공군기의 손실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루에 전투기23대가 격추된것은 2차대전 후 최대의 기록이다.

그러나, 시리아측은 이스라엘소속 미제F·15기와 F·16기 19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영토안의 팔레스타인요새 대부분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은 이날 탱크부대를 앞세우고 시리아 국경부근까지 북진, 베카와 베이루트교외에 남아있는 게릴라요새를 모조리 점령했다.

아리엘·셔론 이스라엘국방상은 시리아의소련제 샘·6 대공미사일 파괴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게릴라요새 격파는 시간문제라고 장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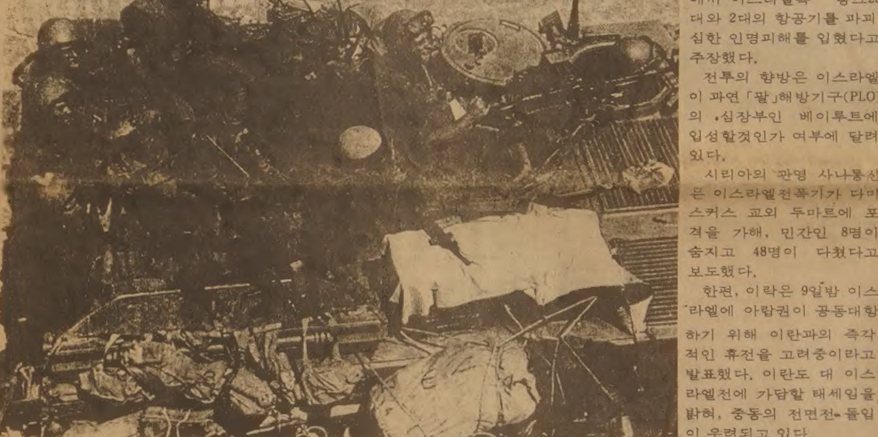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81년4월 시리아가 미사일을 레바논동부로 이동시킨 이후 계속 이를 격파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시리아는 베카계곡전투에서 이스라엘측 탱크23대와 2대의 항공기를 파괴, 심한 인명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전투의 향방은 이스라엘이 과연 「팔」해방기구(PLO)의 심장부인 베이루트에 입성할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시리아의 관영 사나통신은 이스라엘전폭기가 다마스커스 교외 두마르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8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락은 9일밤 이스라엘에 아랍권이 공동대항하기 위해 이란과의 즉각적인 휴전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란도 대 이스라엘전에 가담할 태세임을 밝혀, 중동의 전면전 돌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스라엘 탱크가 베이루트 남쪽 16km지점 PLO 게릴라의 중요진지가 있는 다무르(Damour)로 향하고 있다.

한국산 모토싸이클 북미시장 상륙성공

(서울연합=10일)한국의 모토싸이클 수출이 급성장, 미국·캐나다시장까지도 진출했다.

서울의 「대림모토」는 올해 $350만 상당의 모토싸이클 8,300대를 미국에, 7,640대의 모페드(Moped)를 미국및 말레지아에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간부는 내년에 9천대의 모토싸이클($400만 상당) 수출계약도 이미 완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다른 모토싸이클 생산회사인 효성모토는 올해 어린이용 「모토트리씨클」(바퀴 셋달린 오토바이) 12,334대($358만 상당)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모토간부는 내년부터 이들국가에 매년 2만대의 트리시클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상공부당국자는 한국은 세계20개국에 모토싸이클을 수출한다고 말했다.

노년들이 받는 정부보조금·연금

이민자는 10년 이상 거주해야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망한다고 할 정도로 각종 보장제도가 잘 돼있다. 어린이의 베비 보너스부터 은퇴후 생계보조까지 정부의 각종 혜택이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사회보장제도중 은퇴후 무덤까지 어떤 제도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메리·코벳 변호사가 노년연금및 정부보조금, 회사연금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62 Noble St. Tor. Ont. M6K 2C9)에 문의하거나 본사 김종환기자에게 연락바란다.

65세이상 부부 월$976

62세된 「나은퇴」씨는 지금 은퇴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씨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는 여지껏 하는 일에 싫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건강도 양호한 편이나 더 늙기전에 그와 60세의 아내 「나망구」여사와 같이 골프를 치고, 자녀방문등 여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씨는 억지로 밀려나듯이 은퇴하기는 싫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은퇴를 빨리하려한다.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나씨부부는 은퇴후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한가를 계산한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물론 누구도 자기수명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평균수명(Life Expectancy)산출표는「나은퇴」씨가 65세가 되면 앞으로 14년, 「나망구」여사는 18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나은퇴」씨는 79세, 「나망구」여사는 83세까지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나온다.

◉은퇴한 후의 수입출처

▲노후연금기금(Old Age Security:OAS)

노후연금인 OAS가 있다. 은퇴여부에 상관없이 65세가 되고, 거주조건만 충족(캐나다거주 10년 이상)되면 누구나 신청하여 탈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현재 한달에 $232.97씩 지급되며, 4분의1분기마다 소비자가격지수(Consumer Price Index)로 측정된 생활비 인상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소득보조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나은퇴」씨와 「나망구」여사는 65세가 되어 그들이 정부보조금외 수입이 없으면 (연방)정부는 OAS와 소득보조금(GIS)을 합한 액수를 매달 지급한다. 소득보조금은 현재 개인당 매월 $233.89를 지급하며, 이것 또한 4분의1분기마다 액수가 조정된다. 또한 「배우자부양프로그램(the Spouse's Allowance Program)」은 「나은퇴」씨가 65세가 되었을 당시 「나망구」여사가 60~65세 사이이면 「나망구」여사에게 노후연금과 소득보조금과 같은액수를 지불한다.

연방정부 프로그램 이외에도 온타리오주정부는 주 소득보조금(Guaranteed Annual Income Supplement)을 추가한다. 따라서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노년부부의 보증된 수입은 월$976.48이 된다.

▲캐나다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CPP)

「나은퇴」씨는 「캐나다연금계획(CPP)」이 시작된 66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일했으므로 연금을 탄다. 82년의최고연금은월$307.65로 은퇴한 해의 수입에 따라 좌우된다. 이 최고연금은 「평균산업임금(Average Industrial Wage)을 기준, 「나」씨가 평균임금보다 많은 $20,000을 벌고 있으므로 최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망구」여사는 10년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다. 그녀도 역시 캐나다연금을 탈 수 있다. 「나」여사가 받는 연금은 그녀의 연수입이 적고 66년이래, 이 기금(CPP)에 기여한 것이 적기 때문에(보통 파트타임은 CPP를 거의 떼지 않는다) 상당히 적다.

(2면에 계속)

한·미합자회사 한국여공들

미중역 2명 인질감금

한국내 합작투자 생산공장을 방문중이던 미국 컴퓨터회사의 중역2명이 1백명가량의 한국인 종업원들에게 9시간동안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7일 동경발 기사에 의하면 에드워드·베곤이라는 콘트럴·데이타회사 중역이 360명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근교의 직영공장을 방문했을때, 노사관계에 불만을가진 여공들에의해 감금됐다.

언론에서 일절의 언급이 없고, 정부당국자도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신문은 이번 인질사건이 전대통령이 지난 80년 집권한 이래 가장 중요한 노사충돌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신문이 보도한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네아폴리스의 미국본사에서 지난달 31일 한국에 온 두 중역은 3일 지난 3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6명의 노조지도자들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의 불만을들은 2명의 본사 이사들은 이들이 놓아주지않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억류상태에 놓이게됐다는 것.

다음날 아침 주한미군대사관에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자, 외무부를 거쳐 치안본부에 진압명령이 떨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대부분이 여자인 1백여 농성직공들 가운데 55명을 연행한 뒤, 48명은 잠시후 귀가 조처했다.

한편, 4일 미국에 돌아온 두 이사는 7일 사건내용을 본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연행된 이영순, 한명희등 7명의 여공들은 현재 경찰심문을 받고 있다.

SUNLIFE
백 웅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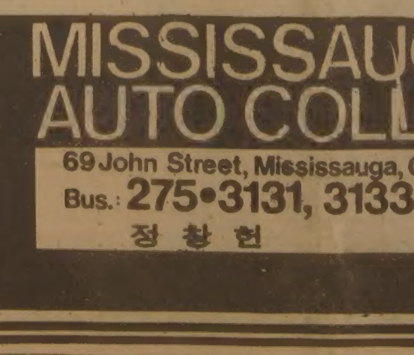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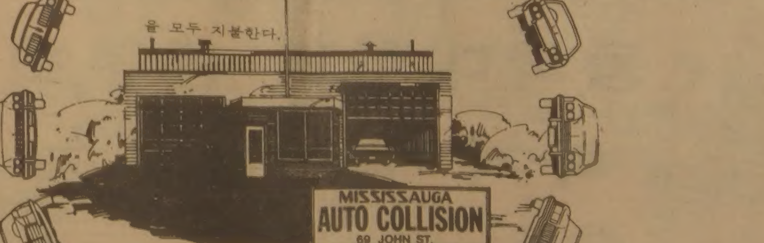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 주관 합동민속제 성료
동양 7국민들 우애 다져
김영주 「5고무」춤에 식사는 중국식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몬트리얼한인회(회장 정회수)는 지난9일 우크라니안회관에서 동양7개국 약450명이 참가한 풀코스 디너파티 "동양민속문화의 밤"을 주최했다.

79년 한국·중국·일본·필리핀의 4개국 교민회가 참가, 제1회를 중국교민회가 주최했으며, 다음해에는 월남이 참가해, 5개국이 되어 역시 중국교민회가 주최했고, 올해들어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함께 참가, 7개국이 되었다.

소수 민족의 모임으로 순수 민속문화에만 중점을 둔 이 모임은 각국 교민회가 돌려가며 주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이번 처음으로 주최를 맡게되었고, 이 모임에 사상 최다수인 450여명이 모인 관계로 다른 참가국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했으나, 정회장이하 "민속문화의 밤" 준비위원들의 열성어린 준비로 뜻밖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음식을 선보이지 못한것이 서운했으나, 몬트리얼에 있는 중국식당도 한번에 450여명분의 출장요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음식준비에 큰 애를 먹었다

이날 하오6시30분 칵테일로 시작된 "문화의 밤"은 7시30분 정회수회장의 6개국 대표에게 적극협조를 감사한다는 개회사에 이어 급비위원들의 소개가 있은후 중국음식 식사에 들어갔다.

식사후 도어프라이즈가 있었으며, 이어 한국 어린이들의 화관무, 중국의 사자춤과 리본댄스, 라오스·필리핀·일본·캄보디아·월남의 민속무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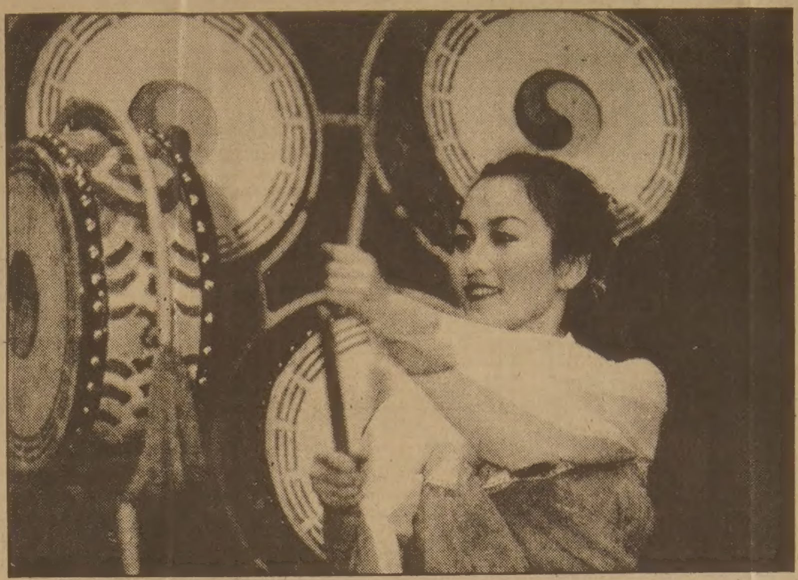
민속무용 순서의 마지막은 김영주양의 오고무로 막을 내렸는데, 김양의 오고무는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민속무용 순서는 회자밀러여사가 맡아 수고했다.

11시 식순은 Jonathan Pang 부회장의 폐회사로 끝맺었고, 이어 소설·댄싱이 있었다.

이날의 입장료는 일인당 20달러였는데, 정부보조등으로 흑자를 남겨; 전년도에는 참가국 교민회에게 똑같이 분배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적금; 기준을 만들기로했다.

이날 식장에는 Gerald Godin이민장관이 참석, 그는 축사에서 4년을 계속하는 동안 이제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적극 이 모임을 돕기로 약속했다.



◆몬트리얼 "아시아민속문화의 밤"에서 5고무를 추는 김영주양의 열연.

박종수도장 태권도대회
산하 7개도장 4천명이

박종수태권도장이 주최하는 박종수(Jong-Park Inter) 태권도챔피언·쉽이 오는 12일 돈밀아리나(1030 Don Mill Rd.)체육회관에서 개최된다.

토론토시내 7곳에서 태권도장을 오픈하고 있는 박종수도장은, 산하 수련생만도 4천명에 이른다.

이번 대회는 7개의 도장별로 단체전 및 각체급별로 개인전이 거행된다.

티켓은 3달러씩이며, 문의는 박종수도장 본관(전화 : 961-7100)으로 하면된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팍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1면에서 계속]

파트·타임자는 연금혜택 거의 없어

▲회사연금(Company Pension)

「나은퇴」씨는 그의 회사연금 계획에 20년간 회원으로 있다. 회사연금 계획은 은퇴하기 직전 5년동안의 평균수입을 기준 연금을 지급한다. 산출방법은 마지막5년동안의 평균수입×2%,×20(년)(나은퇴씨 회사 복무기간). 따라서 지난 5년동안의 평균수입 $18,000인 「나은퇴」씨는 65세가 되면 년$7200, 월 $600를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은 본인이 죽을때까지 탈 수 있는 종신연금이다.

「나」씨의 회사연금계획은 그가 죽더라도 양도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있다. 이 선택권을 택한 「나」씨는 사후에도 연금의 ½을 「나망구」여사가 사망할때까지 탈 수 있다. 유족양도 조항에 가입하면 연금은 $600에서 $540로 준다.

회사연금 제획은 60세~64세에 은퇴하면, 65세 은퇴후 받을 수 있는 600달러에서 년간 약 5%씩을 감액, 조정된다. 이 계획은 65세가 돼야 탈 수 있는 정부노후연금을 탈 때까지 월 300달러의 은퇴준비기금(Bridging Supplement)를 추가 지급한다.

파트타임을 하는 「나망구」여사는 이 연금계획에 해당이 안된다.

▲저축(Sovings)

「나은퇴」씨 부부는 「나망구」여사의 이름으로 $10,000상당의 은퇴저축기금(RRSP)을 들었다. 이것은 60~65세 사이에 연금배당(Annuity)을 탈 수 있다.

▲인플레이션(Inflation)

「나」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노후연금은(OAP·CPP) 인플레이션에서 보호돼 기뻐하나, 회사연금과 RRSP연금은 인플레이션에따라 조정되지 않는다. 물가가 년 10%선으로 오르면 「나」씨의 회사연금 월 $600은 5년후 $400가치 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마다 연금액 달라
인플레따라 금액 인상

▲65세때의 수입(예)

「나」씨는 은퇴후 가족수입을 대강 아래와 같이 계산했다.

〈65세때〉

회사연금	$600
Mr.나 캐나다연금	450
Mrs.나 캐나다연금	120
「나은퇴」씨의 OAS	300
총 월수입	$1,470

(보조연금 GIS는 정부보조금외 아무 수입이 없을 때 해당된다. 따라서 「나」씨는 회사연금, 캐나다연금 수입으로 이에 해당 안된다.)

62세때 :

회사연금	$850
RRSP연금 수입	100
	$950

「나은퇴」씨는 정부의 연금혜택과 더오래 근무함으로써 더 좋은 회사연금 혜택을 받고 저축기금(RRSP)을 건들이지 않고 65세까지 일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살펴 본 「나」씨 부부는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정부의 보조연금계획(GIS, GAINS)을 통해 만약 65세이상의 노년부부의 수입이 어느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보증연수입(Guaranteed Annual Income)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어느정도 마음을 놓았다. 즉, 저축 연금·회사연금등 수입이 없어도 65세 이후의 노인부부는 월 최소$976,48(82년6월기준)을 받을수 있다.

[김종환 기자]

토론토·심포니에 새 활기
거장「스티븐·스태릭」채용

오는 9월 시즌부터 새 매씨홀(로이·톰슨·홀)로 정기공연 장소를 옮기는 토론토·심포니·오케스트라(TSO)는 새 악장(콘서트·마스터)으로 캐나다 바이올린계 제1인자 스티븐·스태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TSO는 지난 수년간 스태릭을 맞아들이려 했으나, 그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올해 50세의 스태릭씨는 16세때 연주생활을 시작, 24세때부터 시카코·심포니, 암스텔담·콘체테브, 영국의 로열·필하모닉등 세계유수의 대 심포니 악장으로 활약했다.

뉴욕·타임즈지는 그를 "하이페츠를 연상하는 기교와 더불어 거장으로서 필요한 순수성·풍부함을 지닌 흠잡을 데 없는 연주가"라고 평했다.

무대에서 표정과 매너로도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자들과 달리 음악성을 흐트리는 어떠한 잡념도 허락치 않는 그의 연주거로서의 일면은 작년부터 어려운 오디션을 거쳐 그의 제자가 된 교민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씨의 말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최상급이라는 바이올린선생들의 모습이 대부분 헛수고였음을 느낍니다. 테크닉이 전혀 다른 경지임은 물론 연주자로서의 자세가 달라요." 라고 박씨는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음반은 40개, 170곡에 달하며, 최근에는 파가니니의협주곡 1번 D장조 작품6번과 무반주의 24 Caprices, Op.1을 레코드로 내놓아 클래시칼·뮤지션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스태릭은 토론토에서 태어난 우크레이니언 2세로 그가 세계적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1956년 24살이라는 나이에 런던 로열·필하모니의 최연소 악장으로 발탁된 때.

1978년과 82년에는 모스크바의 차이코프스키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추대되었다.

72년 다시 캐나다에 정착한 이후, 빅토리아대학, 오타와대학, 웨스턴·온타리오대학등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토론토대학교 로열·콘서바토리에 몸담고 있다.

◆스티븐·스태릭

기지로 무장강도 잡아
강도차 남버외워 경찰에 신고

(LA지사)지난4일 하오5시께 LA코리아타운 올림픽가 삼성여행사(3414 W. Olympic Bl)에 무장강도가 침입, 현금1천5백달러를 강탈 도주했으나, 피해자가 범인이 탄 차량넘버를 목격, 경찰에 신고해 30분만에 범인을 체포했다.

비닐봉지로 권총을 숨겨 여행사에 침입한 범인은 근무중인 교포 전인수(가명)씨의 머리에 총기를 겨눈채 뒷주머니의 지갑을 뺏은후 "입금백(Deposit Bag)을 열라"고 소리쳤다.

범인이 백에서 수표를 제외한 현금을 챙겨밖으로 도주하자, 전씨는 즉각 옆집 교포경영의 송스화원에 경찰신고를 부탁하고, 밖으로 달려나가 마침 올림픽과 그래머시코너에서 후진으로 도주하는 범인의 도요다·셀리카 베이지색(프로리다주 NTB067)을 목격했다는 것.

〈여동원 수필선〉 ⑤

"쌀, 쌀, 쌀!"
— RICE, RICE, RICE—

"엄마, 코리언은 왜 All the time rice, rice, rice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둘째가 밥을 먹다말고 제 엄마에게 묻는다. 옆에서 내가 "왜, 밥이 맛이 없니?"

"No, 캐네디안은 햄버거, 프렌치프라이, 고기, 사라다, somthing 다른것 체인지해서 먹는데 우리는 어제,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밥, 밥, 김치, 밥, 김치, 그래! 아버진 좋아?"

여동원씨

일년내내 바꾸지 않고 먹고있는 이 단조로운 식성에 어쩔 수 없이 길들여 먹으면서도 날마다, 그리고 끼니마다 변하는 식탁의 메뉴를 즐기는 풍요로운 서양인의 식탁이 부러운 듯 이야기하는 이 반서양 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설명(변명)할 뻔했다.

"그것도 큰 복이란다. 매일 똑같은 흰쌀밥을 그것도 하루세끼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이며, 행복한지 아니? 아버지가 너만할 때는 아침은 순 꽁보리밥에 점심은 보리죽, 저녁은 수제비, 그리고 다음날도 그렇게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단다. 때로는 그것도 없어 나무껍질을 벗겨먹고, 쑥을뜯어 먹으면서 살았단다. 단지 살기위해 연명해야 하는 그런 먹음만이 있었단다. 너희들은 고기가 없는 밥상을 대해 본 일이 있느냐? 오늘은 무엇으로 허기진 배를채울까가 아니라, 어떤 맛있는 것으로 먹을까가 너희들의 관심이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알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바보(?)같은 과거의 가난을 무슨 큰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과거(가난)와 오늘(부)과의 비유에서만 이해되는 상대적인 표준을 과거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아버지가 희극배우가 되기 알맞을뿐 이다.

그렇다, 배고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란 우리의 과거가 결코 자랑은 못된다. 춘궁기니 "보리고개"니 하는 비참한 언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것은 순전히 우리 조상의 허물이라 탓할진대, 우리도 우리의 2세들에게 탓함을 받지 않기위해 부지런히, 성실히 1세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교회에선 일요일에 일함을 하느님의 계명을 들먹이며 죄의식을 불어넣는다. 하루쯤은 이네들처럼 푹 쉬고 싶다. 그러나 백인 우선사회인 이곳에서 그들처럼 주40시간 일해서 그들과 겨루어 살 수 있는 사회인가?

남잘때 일어나 있어야 하고, 남이 놀때 우리는 일해야 하고, 남이 깨끗한 손일때 우리의 손은 더러워져 있어야 하고, 남이 싫어버린 일을 나는 주워 일을 해야하는 이 처신이 결코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이 불편하지 않기위해 과거의 가난이 뼈저렸기에 뜨여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오늘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가게문을 열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러하오나 주여! 우리가 결코 돈만아는 돈벌레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생활정보

어떻게 선정할까? 에어컨디셔너를

용량

에어컨디셔너의 용량은 BTU(British Thermal Unit)로 비교한다. BTU란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화씨1도 변화시킬수 있는 열량이며 에어컨에 표시된 BTU는 1시간당 제거할수 있는 열량을 의미한다.

에어컨의 BTU를 정하기 위해서는 냉각할 방의 공간, 창문들의 크기와, 방향, 벽과 마루 및 천정의 상태, 그리고 방안에 통상 머물 사람의 수 등을 계산하여 총 BTU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용 에어컨 구입자가 BTU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대개 판매상의 추산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작은 방 1개라면 5천BTU 정도의 에어컨으로, 4개의 공간이 연결된 1베드룸 아파트라면 1만BTU의 에어컨으로 여름을 견딜수 있다. 집 전체를 냉각하는 센트럴 에어컨의 경우 최소 2만BTU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가 심하므로 중부지방의 기온지수를 기준으로 할때 동남부 해양성 기후지대와 서부의 사막 지대에서는 5~10%를 추가해야 하고 특히 산악지대나 캐나다 접경지대에서는 5%를 절감해도 된다.

◠에너지 효율 (EER)

일단 에어컨의 BTU를 결정한후 여러모델중 EER(Energy Efficiency Rate)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EER은 에어컨 용량(BTU)을 전기사용량으로 나눈 것으로 1만2천BTU에 1천5백왓트의 전기를 사용하면 EER은 8이 된다. 최근의 모델은 EER이 7.5~10이상 나오고 있다. EER이 8인 모델은 같은 용량의 EER이 6인 모델보다 전기를 25%나 절약하므로 에어컨 유닛의 처음 구입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EER이 8이상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절약된다.

◠창문용과 벽 케이스용

휴대용 에어컨은 여러가지 스타일로 나오지만 대개 벽의 「새쉬」나 「케이스먼트」에 넣을수 있도록 에어컨의 뒷면으로만 배기를 하는 것이거나 창문에 설치하도록 옆면으로도 배기하는 것이 있다. 벽 모델은 창문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윈도우 모델을 벽에 설치된 케이스먼트에 넣으면 냉각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의 효율적 사용

에어컨 특히 필터가 더러우면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므로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창문이나 벽틈으로 공기가 새어들면 효율이 낮으므로 적절한 인슐레이션이 필요하다. 햇볕이 드는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주며 에어컨을 햇볕쪽에 보다 그늘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외출시에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적절히 온도 조절을 한다.

금년에 시중에 있는 휴대용 에어컨의 가격, 용량, 효율등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알 림

한글교육과 한국인의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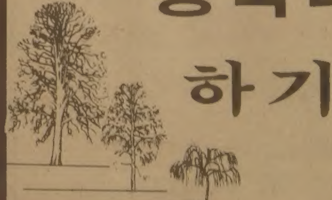
이상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제3회 한맘교육 강좌를 개최하오니 한국문화 보존에 관심이 있는 교민여러분과 한국어 교육을 지도하시는 교사및 학부형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강 연 :
1.한국인의 얼: 유재신 박사 (토론토대학교 동양학교수)
2.한국문학과 한국어교육: 박동규 박사 (한국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교수, 현재 토론토대학교 교환교수)
3.가정에서 한글읽기와 글짓기: 이석현 선생 (한국아동문학가, 한국일보토론토편집인)
4.복합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조성준 선생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교육사회사업가)

토의 : 사회 구상회박사
일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10시~오후1시30분
장소 : 한맘문화회관 439 DUNDAS ST. E. TOR (PARLIAMENT ST. AND DUNDAS ST. E.)
참고 : 다과와 특별프로가 마련되어 있음.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회장 조성준 (☎ 293-7801)
한맘한글학교 교장 허영식(☎ 444-4987)
후원 : 한인장학재단

동국대학교 동문회
하기야유회공고



시 일 : 1982년 6 월26일(토) 오전 11시
장 소 : Darlington Provincial 파크 (401 East로 가다가 Exit 425로 나와서 Courtice Rd.)
연락처 : ☎ 844-8052 정
☎ 481-9373 김

카나다 동대동문회장
정 관 풍

임마누엘 연합교회

창립제 5 주년 기념예배

금번 본교회에서는 창립제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많이 오셔서 주님께 더욱 영광드리는 자리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6월13일(주일) 오후 2시30분
◉장 소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INE AVE, TORONTO.

임마누엘연합교회
교우일동

〈한글학교 어린이작품〉

원숭이와 곰

이 현
웨스톤Y어린이학교 6학년

어느날 숲속에서 원숭이가 곰하고 살았읍니다.
원숭이는 영리해요. 곰은 영리 안해요.
"야, 원숭이, 우리 좀 캠핑을 가자."
곰이 말을 했어요.
"그래 가자."
원숭이가 말을 했어요.
"여섯시에 일어나자."
원숭이가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
곰이 물었어요.
"애 바보야,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갈 거야."
원숭이가 말했어요.
다음날 곰이 다섯시반에 일어났어요. 곰이 물, 고기, 과일, 채소를 다 가방에 넣었어요.
"야, 그렇게 많이 넣을 거야?"
원숭이가 물었어요.
"그래, 내가 많이 먹어야 돼."
곰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곰이 싸웠어요.
일곱시에 싸움이 다 끝났어요. 원숭이와 곰이 캠핑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원숭이가 시계를 보고 울었어요. 곰이 우는 원숭이를 보고 저도 울었어요.
원숭이하고 곰이 다 울고 나서 곰이 원숭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울었어?"
"우리가 싸움하고 시계를 안봤어. 일곱시에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못가!"
원숭이가 말을 했읍니다.
"애 괜찮아, 캠핑을 내일 가자. 그럼 오늘은 바다에 가자."
곰이 말을 했어요. "그래, 가자."
원숭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원숭이하고 곰은 바다에 갔읍니다.

친구에게

김 윤 경
웨스톤Y어린이학교

내 이름은 김윤경이야. 나는 7년전에 캐나다에 와서 7학년(중학교 일학년)이란다.
우리 학교에는 여러나라 아이들이 많지만, 한국아이들도 적지 않아.
나는 음악시간에 피리(플루트)를 배우고, 집에서는 피아노를 친단다.
우리반에는 남녀를 합하여 29명이 있어. 나는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야구와 축구를 즐긴다. 너희들은 어떻게 배우고 노는지 알고 싶구나.
너희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희도 악기를 배우겠지?
너희들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국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단다.
다음에 편지 또 하자.
그럼 안녕.
너의 친구, 윤경이가

동물원 구경

박 정 언
웨스톤Y어린이학교 6학년

전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소풍을 갔읍니다. 육학년 세반이 다 갔읍니다.
학교버스 두대가 와서 다들 같이 타고 갔읍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갔읍니다.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볼 정도였읍니다.
점심은 맥도날드에서 먹었읍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동물원에 있는 기차를 탔읍니다. 다 못본 동물들을 기차를 타고 보았읍니다.
기차가 참 재미있었읍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재미있게 놀다가 학교로 돌아왔읍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4〉

어떤 情事 ④

"넌 그 재미 빼놓고 무슨 재미로 사니…"

『어머나, 저를 어째。그래도 우리 영감보다는 훨씬건강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만 그렇지 사실은 골골해。』
『어머나, 너 그럼 그거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니?』
문자는 비누 칠한 수건으로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물었다。명자는 무겁게 처진 자신의 아랫배를 한심한듯 내려다 보았다。
『처리는 무슨 처리…。그저 한숨 내쉬다가 자는거지 뭐。그것도 자꾸 해야 생각나지 어쩌다 하니까 별로 생각나지도 않아。』
『어머머, 애 봐라。너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그 재미 빼놓으면 도대체 뭐가 있니?』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거지 뭐。』
『이 애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벌써부터 할망구 같은 소리를 하지。』
『그런 소리 하는 너는 재미가 좋으니? 널 보면 섹스에 항상 굶주린것 같던데?』
『내가 그렇게 보이니?』
『응, 내 눈은 못속여。』
『네 말이 맞다。말도 마。』
그녀는 젖가슴에 비누칠을 한 다음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쥐고 주물러거렸다。
『우리 영감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또 그것을 해줘。그 약골이 말이야。』
『대단하다 얘。』
『대단하긴 뭐가 대단하니。자기가 흥분해서달려드는것하고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것하고 어디 같니。알흔 그이는 내 기분 맞춰주려고 애는 쓰는데, 도대체 나는 성이 차지않아。오르가슴을 느낄 때가 아주 드물어。할 때마다 실망과 한숨으로 그친다구。너도 알겠지만 그럴 때는 아주 미치겠어。』
『정말 미치지。』
『자기딴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다고 하는데 난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아。왜 그렇게 사정은 빨리 하는지。』
『몇분만에 싸니?』
『들어오자마자야。나는 그때 겨우 꿈틀거리는데 말이야。』
그녀의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젠 숫제 내가 데리고노는 수밖에 없어。별짓 다 하지。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짧아서 속에까지 닿지가 않아。난 안달이 나서 아우성이지。그러면 뭐란줄 아니? 색골이래。나、기가 막혀서…。』
문자는 화가 난듯 욕조속에서 벌떡 일어섰다。
『스스로 해보지 그래。』
명자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맞는 말이지 뭐。』
명자가 눈을 흘기자 문자는 그녀의 어깨를 철썩 후려쳤다。
『색골처럼 좋은 말이 있는줄 아니?』
『좋으면 뭘 해。만족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단다。내 손으로 말이야。하지만 그건 너무 허무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
『영감님보고 해달래지 그래。』
『우리 영감은 그런 건 또 딱 질색이야。손으로 해달라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미치지。그러면서도 내가 손으로、입으로 서비스해 주면 강아지새끼처럼 기분이 좋아서 가만 있는단다。정말 웃기지。』
듣고있던 명자가 마침내 배를 싸쥐고 웃음을 터뜨렸다。그러나 문자는 웃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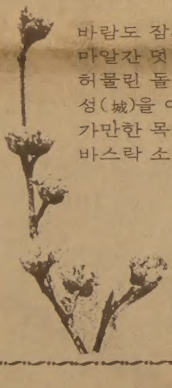
朴 男 그림

〈시 조〉

강 촌

길 미 자
(한국시조작가협회원)

내 한생 피붙은 살붙이
뿌리도 가지도 없이
눈빛이사 별빛
천지간 티끌인데
스스로 풍랑을 싣고
갈잎 하나 떠있다.



바람도 잠재운 날
마알간 덧니 하나 소아
허물린 돌틈을 타고
성(城)을 여는 천연의 빛,
가만한 목숨 둘레에
바스락 소리도 없다.

필연의 매듭을 묻네
숨을 거둔 침선(針線)의 문
들녘에 나앉은 산당화
애써 가린 붉은 치마폭
함성의 불꽃을 터쳐
재를 뿌리고 섰다.

한국일보 이민사회의 나침판!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외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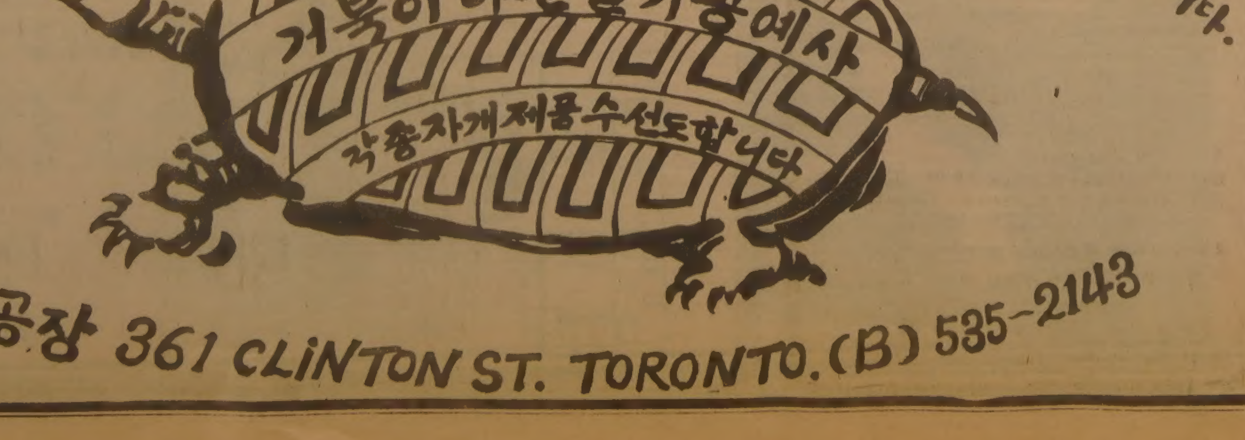
글·高羽榮·그림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안 내 말 씀

고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성장해온 거북이는 이번에 "나전칠기" 자개공장을 새로 설립했읍니다. 나전칠기 전문기술자를 한국으로부터 직접초빙 현지에서 모든자개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이용을 바랍니다.



공장 361 CLINTON ST. TORONTO. (B) 535-214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韓·美 제2世紀 出帆했다"

헤이그美國務, 本社 曺淳煥 前駐美특파원 特別회견

"自由·開放체제 理想등 協力 侵略엔 큰代價, 對話길만이…"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8일 韓美양국이 지난 한세기동안 강력하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상기시키고 공동으로 침략을 저지하면서 안정과 번영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새롭고 생산적인 제2世紀를 펼쳐나가자고 역설했다.

헤이그장관은 본사曺淳煥전駐美특파원이 離任차 워싱턴을 떠나기전에 가진 회견(書面)에서 동반자관계에 있는 두나라 국민은 자유가 보장되고 開放的정치체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말했다. 헤이그장관은 南北韓관계에도 언급, 全대통령의 1·22對北제의는 포괄적이고 합리적 제안이므로전폭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대화대신 침략을 택하는경우 그들의 침공은 물론 격퇴될것이고 큰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이그장관은 장차 북한은 여하한 침략을 기도하기전에 한국에는 잘무장된 한국군과 駐韓미군이 있으며 유사시에 補強군사력이 신속히 발동될것임을 계산에 넣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의미에서 북한은 한국의 경쟁상대가 되지않는다고 단정한 헤이그장관은 북한은 자체능력으로 현재의 대규모 공격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간 우위를 유지하고있는 북한의 군사력이 결국 경제력의 不均衡의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헤이그장관은 이어 88올림픽 서울 誘致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所信을 밝히면서 韓美두나라 국민사이에서 비공식交流의 폭을 넓혀 상호이해를 도울수 있기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다음은 韓美관계및 한반도정세에 관해 헤이그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헤이그 美國務長官

—헤이그장관, 지난1백년간의韓美관계에서 양국은 서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양국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것으로 봅니까.

▲양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확실하고도 중요한 가치를 共有하고 있다는 점을 배웠읍니다.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개인의 역량과 자유기업체제를 통해 번영을 성취하려고 시도했었읍니다. 양국국민들은 자유가 보장되고 개방적인 정치체제들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우리 누구도 아직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완벽하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우리가 지향해야한다고 믿는 방향만은 설정되었읍니다. 오늘날 韓美양국은 장래가 촉망되는 강력하고도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우리는 北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하기위해 함께 일하는 확고한 우방관계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 한국민과 미국민들은 서로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국민은 친구로서 한국국민과 앞으로 새롭고 생산적인 제2세기를 펼쳐나갈것입니다.

—한국국민의 가장 큰관심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귀하는 南北韓통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있는 구상을 갖고 있읍니까. 그구상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지요. 또한 일본 중공 소련등 주변국가들이 한반도통일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있을까요.

▲한국의 계속적인 분단상태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나는 통일에대한 한국민들의열망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 수년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국민스스로에의해 성취돼야 하는것으로 믿어왔읍니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정부사이에 토론과 협상을 요구할것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많은 구상들이 제시되었읍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내놓은 제안들, 특히 지난1월22일 全斗煥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이고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읍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회담개시의 전제조건을 계속고집하면서 그조건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통일에 관한 협상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동등한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을경우 북한과의 어떠한 토론도 거부할것입니다.

◇曺淳煥전특파원

미국은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열기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계속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일본과 中共·소련의 역할에 대해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일본은 한국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이 이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믿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려 함에 있어 우리 두나라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나는 中共 역시 한반도의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소련도 비슷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귀하는 남북한간의 군사·경제적경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오는 10년간 이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측의 군사적균형은 장거리포, 탱크등 공격용무기부문서 실제적인 우위를 점하고있는 북한이 계속 우월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국민생활의 큰희생을 감수하고 경제적자원의상당한 부분을 무기경쟁에 퍼부음으로써 군사적우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의 침공이 격퇴될 것이고 북한은 큰 댓가를 치러야만 할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한국군의 힘이 강하고 잘무장돼 있을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둔과 우리의보강능력도 계산에 넣어야 할것입니다. 韓美동맹은 북의 침공에 대한 可恐할 억지력이 되고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공해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들을 쫓아낼수 있읍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경쟁이 없읍니다. 한국경제는 북한보다 3배나 규모가 크며 굉장히 빠른 비율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장기적인 전망을한다면 한국경제는 우수하며 북한경제는 불분명합니다. 장차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커질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군사적밸런스는 이러한 경제적불균형에 따라 영향받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네의 대규모공격군을 유지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領袖회담 參席범위 異見

3黨총장, 오늘 다시折衷키로

民正·民韓·국민당은 8일하오 국회의장실에서 與野領袖회담을 추진키위한 첫3黨사무총장회담을 열고 領袖회담추진문제를 논의했으나 참석범위를 놓고 民正·국민당과 民韓黨의의견이 크게엇갈려 타결을 보지못한채 9일상오10시 다시모여 절충을 계속키로했다.

지난4일 3黨3役회담의 결정에의해 이뤄진 이날 사무총장회담에서 民正·국민당측은 多黨制의 헌법정신과 현실여건에 비춰 全斗煥대통령이 招致하는 형식에 의한 李載灐 民正黨대표위원, 柳致松民韓黨총재, 金鍾哲국민당총재등 3黨대표회담을 제의한데반해 民韓黨은 이번領袖회담이 柳총재의 제의에 따른것이므로 단독회담을 주장했으며 이에따라 議題문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이날 權翊鉉 民正黨사무총장은 첫회담을 마친뒤 『3黨정당대표회담의 참석범위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각당의 입장이 각각달라 원만한 합의에 도달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柳漢烈民韓黨 사무총장은 柳致松총재가 領袖회담을 제의했음을 상기시킨후『난국수습을위해서는 대통령과 제1야당총재가 허심탄회하게 시국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申喆均 국민당사무총장은 『원만한 時局수습을 위해서는 많은 衆智를 모아야하기때문에 3黨대표가 함께 자리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의 사무총장회담에서의 異見에도 불구하고 政界에서는 全대통령의 3黨대표招致형식의 회담이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기술·자원補完관계를" "平和愛護국민과 協力"

韓·자이레大統領, 어제 만찬

全斗煥 대통령은 8일 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訪韓이틀째를 맞은 자이레공화국의모부투 대통령내외를 위해 만찬을 베풀고 민속공연을함께 관람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만찬사를통해 『아프리카의심장부에서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있는 자이레공화국과 경제개발과정에서 습득한경험과기술, 그리고 숙련된 人的자원을가지고있는한국은 양국의 상호발전을위해 훌륭한 보완적관계를 구축할수있다고믿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양국은 다같이 과거에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해 엄청난 댓가를 치른 쓰라린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 경제개발을통해 국민복지를 향상시켜야하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있다』고 지적, 『이러한 공통점은 두나라 국민사이의 진정한 우의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을 가능하게하는 원동력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이에대한 답사를통해 『자이레는 평화를 애호하고 자이레의 主權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모든나라와 상호보완및 상호이익증진의 원칙하에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하고있다』고 말하고『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각 위치한 우리양국의 경험을 결합하는것은 우리두나라에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모부투 대통령은 또 한국문제에 언급, 『이문제는 한국국민자신에 속하는 문제로서 南北韓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外部의압력없이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은 모든수준에서 유대와 단결을 더욱 과시해야 할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양국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결연히 결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측에서 3府요인과 관계부처 각료, 民正、民韓、국민당등 政黨대표와 駐韓외교사절, 자이레측에서는 공식수행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국립묘지를 참배, 충혼탑에 獻花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뒤 ○○부대를 시찰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이어 경제4단체장이 新羅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9일 現代조선소와 浦項製鐵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3黨사무총장들은 8일 회담을갖고 與野領袖회담 추진절차등을 논의했으나 참석범위에 대해 各黨간의 의견이 엇갈려 타결을 보지못하고 9일 다시 절충을 계속키로했다。(사진㊧로부터 柳漢烈民韓·權翊鉉民正·申喆均국민당 사무총장)

國會 7월초不召集 民正黨방침

民正黨은 정부가 제출한각종法案심의를 위해 이달말이나 7월초 열기로 예정했던 제11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이軍, 베이루트 27km 接近

北進一路…시돈港등 要衝도 장악

【베이루트7日AP合同】 이스라엘軍은 7일 육·해·공군과 탱크·공정대등을 동원, 남부레바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전략거점 보포르와 시돈항, 티레항, 나바티예, 하스바야등 수개 전략요충을 장악하고 베이루트외곽 27km까지 접근했으며 베이루트상공에서 시리아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여 시리아의 미그전투기 모두 3대를 격추시켰다. 이와함께 이스라엘전투기들은 연3일째 베이루트와 시돈항이남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했으며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별다른 저항없이 시돈항과 보포르등 주요전략요충을장악한이스라엘탱크부대는파죽지세로베카계곡으로북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이스라엘軍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주요공격목표였던 나바티예부근에서 아랍평화유지군(ADF)을 구성하고있는 시리아군과 접전, 장교1명을 포함한 시리아군 5명이죽고 10명이 부상했다고 시리아군당국이발표했다.

【니코시아(사이프러스)7日AP合同】이란은『시온주의자침공의 새로운 물결을 막기위해』남부레바논에 자국혁명수비대와 육군병력을 파병할것이라고7일발표했다.

"北傀 反韓조항 채택거부로 우리 統一정책支持 재확인"

외무부 非同盟논평

외무부는 8일 『지난 6일 쿠바首都 아바나에서 폐막된 非同盟調整委 각료회의가 北韓이 제의한 駐韓美軍철수、外軍基地철폐、유엔軍사령부解體및 休戰협정의 평화협정代替를 내용으로하는 한국관계 조항의 전면채택을 거부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柳志鎬외무부대변인은 이번회의에서 韓國문제와관련, 外軍철수의 희망을 표시하는 妥協조항이 추가되긴 했으나 北韓의 편파적제안의 채택을 거부하고 7·4공동성명에 입각한 韓國民의 평화통일 노력에대한 지지를 재확인한것으로써 우리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이 대다수 비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받고있음을 실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5월31일부터 6일까지 아바나에서열린 비동맹조정위각료회의에서北韓측은駐韓외국군철수등 편파적 제안을관철시키기 위해 책동을벌여왔으나 대다수 회원국들의강력한 반대에부딪쳐 결국철폐되고 대신▲조국의平和統一을 성취하려는 韓國人의여망과 이를 1972년선언(7·4공동성명)의 원칙에따라·外勢간섭없이 달성하려는 노력에 대한지지를 재확인한다▲이러한 韓國人의 열망이 이지역에서의 모든外軍철수에 의하여 촉진될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는등 2개항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社会漫評

「黨」이라는것이 있었구나!…

地平線

테어도어·C·토머스가 쓴 책에 氣象사나이란 과학소설이 있다。그 줄거리를 보면 세계를 주름잡는 국제정치기구로 기상심의회가 있어 각국대표가 참여한다。力學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엔 가뭄이나 태풍을 벌로 주고 어느 나라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준다。말하자면 氣象을 조절함으로써 유엔대신 국제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이다。앞으로 몇해 안가 이런 공상이 실현될지 모른다。▼어제새벽 태양폭발로 생긴 적색·녹색·흰색의 찬란한 3색 섬광을 한국동 남북위도 40도지점부근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섬광현상은 태양의 에너지입자가 대기상층부의 가스입자와 충돌할때 발생하는데 에너지의 양에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한다。이번의 태양폭발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지구에 줄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磁場변화·무전방해같은게 예상되고 있다。▼태양 폭발은 농사에도 관계가 크다。미국中西部에 최근 몇해동안 일어났던 가뭄이 태양폭발=태양흑점의 11년周期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양의 磁場조건에 따라 흑점이 지배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 흑점크기에 의해 농사는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드는데 태양의 흑점이 작아지면 지구가 냉각되고 눈이 많이 오는 해가된다는 것이다。하나 지구는 지금 公害때문에 따뜻해지고 있다는학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小氷河期에 접어들어 매서운 겨울로 될 것이라는 학설도 있다。▼지구溫暖說을 주장하는 스테판·슈나이더박사같은 이는 지금처럼 燃料에너지를 쓰면 앞으로 20년후엔 기온이 3도올라 南極의 얼음이 녹고 海水位가 45~75㎝ 높아져 플로리다의 해안도시 대부분과 워싱턴、뉴욕이 물에 잠기며 미국국회의사당에서 보트를 타야할형편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이와달리 지구 寒冷說은 태양폭발, 태양磁場변화로 지구궤도에 幾何學的변화가 2만3천년에서 10만년간격으로 생기는데 이 때가 氷河期라는것이다。▼아뭏든 태양폭발로생긴 지구의 기상변화는 농사는 물론이고 교통,통신,레크리에이션에중대한 영향을끼친다。이에 대비해서 미국에선 日光浴을 위해 反射用인공위성을 쏘아올릴계획까지 세우고있다。日照시간을 바꿔 농업, 공업분야에 응용하면 효과가 크리라고도 한다。눈부시게 발달하는 과학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그까짓 태양폭발쯤이야 매번 되풀이되는데…할것이아니라 지구나 태양에도 눈을 좀 돌려볼때가 되지 않았나 느껴진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초호화판 RYERSON 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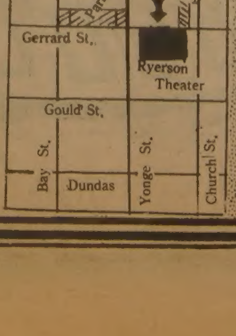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판 매 처 :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나,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김용순, 김순이

찬조출연 : 백미애,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NORH YORK CHEV.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타(킴스카메라)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 트로피) 100불 이창복(팬·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Peel Club. $200 이병권(체육회장) $300 쌍방울메리야스 $50 미도파백화점 $100 제일여행사 $50 송창섭(ANCHOR AUTOBODY) 박인순(한인회장) $200 아세아한약방 $30 브랜돈스포츠(이건영) $100 김종조(종합보험) $50 조규혁종합보험 윤호영(SUN LIFE) 충오태권도학교 $100 강윤모 $50 무명씨 $20

도움주신단체 :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코리아타운번영회 $200 총영사관 $300 동우회 200불

총 감 독 : 장기철

주 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 (416)534－1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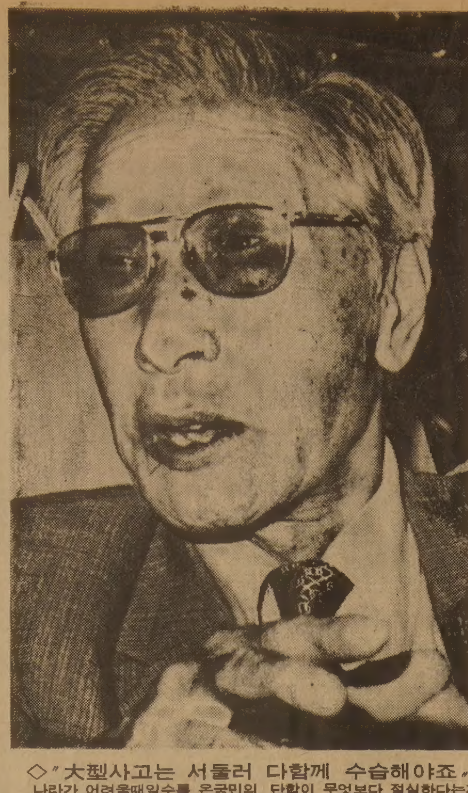
후 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동우회

本紙創刊28돌 기념 元老특별인터뷰

許 政씨

<前 過渡정부 首班>

未來는 밝습니다



◇"大型사고는 서둘러 다함께 수습해야죠"
나라가 어려울때일수록 온국민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게 友洋 許政씨의 持論이다。許씨는 『최근 李·張부부사건등 잇단 大型사고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서둘러 수습해야하며 그것때문에 무슨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요즘 나라안팎으로 모든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데다 여러가지로어려운 사건들이 잇달아 걱정스럽기도합니다。그러나 나는 언제나 일맡은 사람을 동정하는 편입니다。작은일이나 큰일이나 일단 일을 맡으면 달라집니다。일을 맡지않은局外者들은 잘모르지요。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보다는 잘되기를 바라면서 침묵을 지키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일에 좀처럼 생각을 밝히지 않기로 이름난 友洋 許政씨(86·前過渡정부首班)가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時局에 관해 입을 열었다。

舊韓末에 태어나 浮沈 激動하는 國運과함께 생활하고 체험하고 목격해온 風霜風雨80여년의 元老는 그득한 나라걱정속에 『하루빨리 모든일이 잘수습되어 사회와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외부인사와 거의 접촉을 피하고 신문·방송의 회견요청도 사양해오고있는 友洋은 한국일보와는 故百想 張基榮社主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데다 가까운 친구들도 여럿이 있어 特請을 허락했다며 서울 종로구 新橋洞자택의 松楓亭에서 기자를 맞았다。

『아뭏든 일맡은 사람들이 잘해서 難局을 하루속히 수습했으면 합니다。지난번 宜寧사건때 느낀것이지만 그순경이 6시간동안이나 총을 쏘고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의협심있는 청년도 하나 없었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누군가가 나서서 그를 제지할 사람이 한 둘은 있을법할텐데…』

그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자못 서운한 표정이다。

『허영에 들뜬 여자 하나때문에…』라며 최근의 李哲熙 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을 언급하려다가 『그러나 국회에서 열심히들 추궁했으니 속히 끝내고 마무리를 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우리도 모두 함께 서둘러서 수습을 해야지요。그것때문에 무슨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다행히 국회에서도 추궁을 했고 집권당인 民正黨도 많이 나아지고…』

그는 이사태가 잘 마무리될것으로 樂觀한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은 점차 만연되어 가는듯한 不信風潮와 난무하는 流言蜚語가 하루속히 해소·지양되어야한다고를 걱정하고 있읍니다。요즘 世態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여러가지말들을 하지만 사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독일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들 했읍니다만 우리경제도 기적을 이뤘읍니다。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고얼마나 잘살게 되었읍니까。

우리국민들이 日帝에 시달려 약은 국민이라고들 하지만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한국민은 민주주의 소질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과거 執權黨들이 집권연장을 위해서 정치탄압을 할때 국민들은 언제나 반항하지 않았읍니까。不正선거를 했다고해서 4·19로 李박사가 그만두고 나갔고 過渡정부를 맡아 百일동안 改憲과 總選을 다했지요。당시정부를 맡은 나로서는 北의 공산당이 쳐내려오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읍니다。국민들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7·29선거는 우리선거史上 제일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실시된 선거였어요。나는 그때 경찰이나공무원들은 일체介入하지말고 공명선거가되도록 감시만 잘하라고 지시했었어요。국민의 민주주의에 의한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가운데 선거를 치루지 않았읍니까。나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잘될것으로 봅니다』

「民主主義」란 떠들썩 한것 協力하면 못할일 없지요

—국회운영이나 새헌정체제등 요즘의 政局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英國은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5백년이고 미국은 2백년이 지났읍니다。우리는 이제 겨우 30여년 밖에 안되었어요。아직 초창기에 이만하면 성공이고 기적이지요。괜찮아요。국회도 그정도면 괜찮다고생각합니다。민주주의란 좀 시끄럽고 떠들썩한것인데 이정도는 개의치않아요。

과거정치에서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일을 맡은 사람을 못살게 굴려는 경향이 있었지요。우리정치도 이제 그런습성을 버려야 합니다。一朝一夕에는 다안되겠지만…。그래도 이대로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수준도 많이 나아졌구요』

—韓日 간에는 經協문제로 알쿡이 요즘 줄다리기를 하고있는데 일찍이 韓日회담을 해보신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보고 계신니까。

『저는 처음부터 日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일체 접어두고 韓日회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日本과 협상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지만「日本人은 역시 日本人이다」「日本人은 할수없구나」하는생각이 들었읍니다。60억달러의 경제협력도 그래요。日本과 같은 經濟大國이라면 그정도의 돈이야 선뜻 내어놓을줄 알아야지요。한푼두푼 깎으려하고사사건건물고늘어지고…。

日帝시대의 압박고초를 당했다고 무슨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일 감정이 있었더라면 會先해서 회담하자고 했겠읍니까。李박사의 對日감정도대단하지 않았읍니까。「할수없는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끌고가야지요。韓日문제도 국제관계인데 日本을 비판할것없이 우리가 할일을해나가야지요。과거의前轍이 있지만 희망을 갖고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금년이 韓美修交 1백년이라고해서 韓美관계는 새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되고 있지요。미국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고마운 나라입니다。近代文明이란 기독교문명인데 그 문명이 처음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한것이 미국아닙니까。더우기 6·25의 비극을 당했을때 미국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越南戰에서는 같이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지요。얼마전 카터행정부가 들어서 撤軍을하고 손을 뗀다고 했을때는 고약했지만…。카터가 그런 추태를 부린것은 잘못이었읍니다。다행히도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런 정책을 바꿨기때문에 이만큼 된것입니다。太平洋지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이외에 믿을만한 盟邦이 어디 있어요。미국이 있어서 소련의 진출이 억제되고있고…。韓美관계는 걱정없이 튼튼한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포클랜드事態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유세계가 훌륭한 판단을 한것같아요。미국과 영국이 같이 손을 잡지 않았읍니까。英國이 잘못했더라면 큰일날뻔 했지요。영국도이제 3류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처首相이 의외로 잘했다고 생각해요。아르헨티나는 큰데모가 일어나고 해서 정권이 不安을느끼자 국민의 인기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무모한 짓을 한것같은데 영국이 적절하게 대응한것 같아요』

올림픽誘致 快擧…北傀서 방해못해 젊은이들은 歷史的 긴眼目 가져야

—北傀는 지금 金日成共産王朝구축을 위해 金正一에게 政權世襲을 기도하고 있는데 統一문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이 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무엇인가 일어날것이고 일어나야 합니다。나는 개인적으로 이북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피끓는 사람들이 金日成밑에서 굴종하는것도 한계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나 자신은 中共의 自由化를 낙관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도 무엇인가 일어날것으로 보고 있어요。폴란드처럼 自由化의 물결이 일어나야 우리의 통일도 이뤄질것으로 봅니다。그럴 징조도 보여요。통일문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읍니다』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유치로 국민들의 기대는 벌써부터 부풀어 있는데…內實있는 大會를 치를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잘되었어요。정말 잘되었읍니다。일부에서는 혹시 赤字대회가 되지않을까 걱정들하는 모양이지만 너무 신경쓸것 없다고 봅니다。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지요。金日成도 공격못할 겁니다。전세계인의 축제를 金日成이 어떻게 방해할수 있단 말입니까。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올림픽의 聖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당하게 주최해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도 신문을 늘 보다가 요즘은 시력이 다소 약해져서 자세히는 다 못보고 있읍니다만… 최근 언론에 대해 일부비판이 있다는것은 압니다。하지만 언론이 李박사의 自由黨시절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언론이 自制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나갈수는 없는것입니다。일부에서 언론을 통제한다는게 아니냐는 비판은 오늘의 언론을 너무나 皮相的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것같습니다。멀리보고 깊게 생각해야지요。時局도 수습해야하고 경제도 회복해야하고 國防 安保도 해야지…。이렇게 큰일에는 언론도 당연히 협력하고 또 비판할것은 비판해야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고싶은 말씀이 있읍니까。

『나는 젊은이들에 대해 낙관하고 있읍니다。日帝의 식민지로 있을때 反抗의식들이 모두 강했는데 지금도 우리민족에게는 그때의 의식의 작용이 남아있지않나 생각합니다。이제는 잘해도 우리가 잘하는것이고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하는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그리고 일을 맡기면 도와서 잘되도록 국민들이 협조해줘야지요。탓만 할것이 아니라 아량을 가져야합니다。우리가 젊을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편입니까。옛날에 비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은 환경에 있읍니까。젊은이들은 성급해서는 안됩니다。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긴 역사적 안목을 갖고…。金日成이만 없으면 젊은이들이 기질을 발산하고 다소 떠들썩한것도 괜찮아요。6·25때 北傀가 갑자기 南侵한일이 생생하지 않습니까。現代戰은 파괴전이니까 파괴되어도 다시 일어설수는 있겠지만 損失이 너무 클것이라는 얘기입니다。그러니 참고 견디자는 거지요。우리도 어렵을때는 많이 했지만…。인간의 본성이란 제재받기를 싫어하는것 아닙니까。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특수하다는것을 인식하고 隱忍自重하여 金日成이 장난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약 1시간반동안 여러가지문제에 대해 나라의 어른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그는 「6월9일이 한국일보 창간28주년」이란 기자의 얘기를 전해듣고는 금방 故百想 張基榮社主에 대한 회고담을 털어놓았다。

『28년전이라면 54년이구먼…。그때는 내가 아마 사회부장관을 지낸뒤 잠깐 쉬고 있을때였지。百想은 정말 무척 아끼는 친구였는데…。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가지면에서 그가 남긴 足跡은 큽니다。벌써 5년인가요。늙어 가신지! 多才多能하고 創出力이 강한, 無에서 有를 창조해내는 유능한 人材였지요。그런 人材가 일찍 간것은 국가를 위해 커다란 손실입니다。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한국일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더욱 더해간다고 격려했다。

나이를 묻는 질문에 友洋은『지난 4월초파일로 만86회생일을 맞았는데 너무오래 살았나보다』며 破顔大笑한다。

『요즘엔 거의 밖에 나가는일이 없이 하루종일 집에서 산책이나 하면서 지냅니다。한달에 한번정도 統一院의 고문회의나 國政자문회의에 나가는것을 제외하면 집에만 있는셈이지요』

그래서 의사를 찾는일도 없다며 「정정하고 건강한 近況」을 보여주었다。

건강의 비결이란게 따로 있을수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小食과 규칙생활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일러주었다。

『아침에 5시면 일어나지만 가급적이면 6시나 7시까지 자려고 해요。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하고…。아침식사는 오토밀에 계란하나, 코피는 안마십니다。점심은 빵을조금 들고 저녁에 밥을…小食을 하는편이지요』

가끔 기회가 있으면 골프장에 나가 18홀을 돌수 있을 정도로 9순을 바라보는 元老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

골프 얘기끝에 『아직도 걷는데는 지장이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기자에게 『잘가라』며 손을 내밀었다。

【政治部 黃昭雄기자】

◇雲甫 金基昶화백의 한국일보 創刊28돌 기념揮毫

화목과 번영 그곳으로

한국일보 창간 28주년을 축하하며 趙炳華

매일 매일
엄청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덜컥덜컥 내리는
가슴
불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어느 한 곳
즐겁게, 시원시원히
피곤한 정신을 풀 곳 없는
까마득한 활자판
가시 아니면
발가 벗은 땡볕이다
아는 자유와
알리는 자유와
그것들이 모두 한 곳으로
나라를 다지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화목케
나라를 즐겁게
나라를 번영케
이끌어 가는 길로 열리길 바라며
매일 매일
신문을 읽는
마음
내 마음은 그 소망으로 가득하다
오늘 한국에서 먼 미국에서
한국일보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소리
언론의 지성이여
그 사명이 나라와 함께 있길
화목과 번영
부강과 전진, 그 곳으로。

메아리

汚水폭포

20세기에 들면서부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차세계대전이 끝난 연후는 그와같은 현상이 가속되었다。

특히 사람의 생활과 깊이 상관하는 경치의 아름다움이나 그 특성에 주목하여 유네스코에서는 1962년「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 그 보호를 당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어느 한 지대에 대한 광범한 경관과 독립된 풍치지구의 계획화 방법을 제시하고 토양과 공기와 수질의 오염을 금지하는 일로부터 광고의 설치제한에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에 뒤이어 1968년에는「공적 또는 사적인 공사에 의해서 위험에 직면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권고」를 채택,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문화재의 보존이냐 아니면 산업개발을 우선시킬것인가의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삼았다。

세계가 온통 고도산업의 성장이 몰고 온 갑작스런 개발사업으로 문화재와 자연환경의 보호가 어렵게된 시기에 채택된 앞의 권고는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추세에 밀려 실효가 없다시피 됐다。우리 사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도시와 농촌을 가릴나위 없이 공해와 환경의 파괴가 몰고온 사단은 거듭된 유네스코의 권고를 보다 절실한 그리고 적절한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했다。

공해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과 경관의 훼손은 도시주변이나 아니면 본토만의 일인가 했더니 급기야는 멀리 청정했던 제주로까지 미치고 말았다。

한라영봉을 배경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천지연과 정방폭포가 온통 썩은물이요 폐유찌꺼기로 더럽혀져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도 그럴것이 수원일대에 집이들어서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시궁창 물이 그대로 흘러 내리니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폭포의 아름다움이 세계서 유일한 하수폭포로 전락하고 만것이다。

지난날 이들 폭포밑은 물속 모래까지 비치던 청정수역이었다。그 정경을 되살리기위해, 그리고 우리의 쾌적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야 할 일이다。

제1회 북미태권도 초청 챔피언·쉽

일 시 : 6월19일(토)
장 소 : 에토비콕 올림피움(590 RATHBURN RD.)
☎626－4154
예선 11 : 30A.M, 결승 7 : 00P.M(연무시범)
입장료 : 어른 5불 , 어린이 15살미만 3불

이번 대회는 호구를 사용한 세계연맹 규정에 의한 대회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최 : 박주삼태권도대회 문의처 : 박주삼도장
주소 : 814 BLOOR ST. W. 전화 : 535－4000

■ 6/9 『口腔의 날』에 다시 생각하는 우리의 健康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口腔衛生, 그 10가지 常識

6월9일은 서른일곱번째로 맞는 「구강의 날」입니다. 예부터 튼튼한 이(齒牙)는 다섯가지 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쳐 왔읍니다. 이가 튼튼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 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가 고르지 못하면 턱을 비롯해서 입근처 근육과 턱의 발달은 물론 언어와 정서(情緖)면의 장애 마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이야말로 장수(長壽)와 미용(美容)의 비결인 것입니다.

6월9일을 「구강의 날」로 맞은데는 까닭이 있읍니다. 만으로 6세가 되는 해에 이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세구치(6歲臼齒)란 이름의 영구치(永久齒)가돋아 나기 때문입니다. 육세구치란 젖니(乳齒)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제2유구치(乳臼齒) 바로 옆자리에 돋아 나는 첫번째 큰 어금니(第1大臼齒)로 '음식물을 씹는(咀嚼) 일은 물론 얼굴 모양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실을 하는 이 입니다.

이의 중요성은 이가 생겨 나게 된 발생학(發生學)적인 면에서 보아도 잘 알수 있읍니다. 이는 본래 소화기(消化器)의 일부로 발달 했읍니다. 그후 먹이를 잡고 이를 씹는 역할을 함께 갖도록 되었읍니다. 이가 나빠지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함께 약해 지는 것은 이렇게 볼때 극히 당연하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의 건강관리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로 꼽힙니다. 장수와 미용의 지름길이기도한 건치(健齒) 10장(章)을 여기 소개합니다.

①이는 쪽 고르게 서로 버티어 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이에 대한 부담이 커져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의 건강은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 해야 합니다. 1년에 2회정도 칫과 전문의의 정기검진을 받고 충치와 풍치등을 즉시 치료 받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잇몸병을 앓는 사람들은 1년에 2회정도 스케일링을 해서 이똥(齒石)을 제거해야 합니다.

②턱의 발달이 좋지 않으면 치열(齒列)이 나빠집니다. 어릴때 턱을 손으로 받치고 엎디어 잔다거나 오랫동안 고무젖꼭지 같은것을 사용하는 것과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자는 일은 치열을 나쁘게 할수 있읍니다. 과자나 알사탕 같은 것을 물고 자는것은 충치를 만들어 주는 원인이 될수 있읍니다. 이 쑤시는 일은 잇몸병을 일으키게도 합니다. 이같은 좋지않은 습관을 버려야 하겠읍니다.

③이 닦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읍니다. 충치 이환율의 60%정도가 3살때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서 적어도 2살때부터 올바른 이 닦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④발육중의 이는 신체 가운데 어떤 기관보다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젖니는 생후 4~6개월부터 석회화(石灰化)가 시작되고 1년만에 법랑질이 형성됩니다. 영구치는 태어나서 8~9세에 법랑질의 석회화가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엔 특히 이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燐), 마그네슘등 무기염류(無機鹽類)와 비타민 A·D·C등의 충분한 영양공급이 따라야 합니다.

⑤치열이 나빠 음식을 잘 씹을 수 없다거나 이의 모양이 나빠지면 즉시 교정을 해야 합니다. 교정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최근엔 교정기술이 발달해서 일찍만 서두르면 대부분 바로 잡을 수 있읍니다.

⑥잇몸과 아사이에 끼는 이똥은 여러가지 잇몸병을 일으킵니다. 성인의 70% 정도가 이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단계에서 제거해 주어야 이의 수명을 길게 할수 있읍니다.

⑦음식물의 찌꺼기가 이 사이에 남아있어 이곳에 충치의 세균이 침입, 발효(醱酵)함으로써 산(酸)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산이 법랑질을 녹여 벌레먹은 구멍을 만들게 됩니다. 충치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태로 되돌릴수 없읍니다. 규칙적으로 이를 닦는 습관을 갖어야 합니다.

⑧입에서 고약한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읍니다. 위(胃)가 나쁠때도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일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충치와 잇몸병에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를 잘 닦는다 해서 해결되지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⑨칼슘, 인, 마그네슘, 비타민 A·D·C 등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읍니다. 계란, 우유, 멸치, 생선, 야채등이 좋은 식품으로 꼽을수 있겠읍니다.

⑩깨끗한 가제 같은 것으로 이와 잇몸을 덮어 씌운다음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잇몸을 약 1분정도 힘있게 압박하는 지압(指壓)요법은 잇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분 정도 압박하면 잇몸의 모세관속의 혈액과 고름(膿) 또는 각종 분비물이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고 그 자리에 깨끗한 혈액이 차게되어 염증을 비롯 통증과 고름 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좋은 치약 좋은 치솔을 선택 해서 식후에 치아를 자주 닦는 습성을 어릴때부터 기르는것이 구강위생 및 건강에 좋습니다.

글 尹漢哲(치과전문의)
그림 정준용(서양화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2>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⑫

오목이는 어둑시근한 부엌에 쭈그리고 앉았다. 부엌이라기보다는 집뒤 처마끝이 뒷집 축대와 맞닿으면서 생긴 골목이라 대낮에 가까운데도 마냥 어둑시근했다. 뻘 온 안뜰건만 바라의 통로였다. 연탄아궁이위에 얹힌 양은솥에선 물이 끓건만 물이 끓는 소리는 오싹오싹했다. 두고나온 두툼한 겨울옷 생각이 간절했다.

할 일이라도 더러더러 있으면 좀 낫겠는데 아침밥 지어 놓는지도 오래고, 설거지거나 해난 빨래도 없수 마를 때가 됐고, 더께가 앉은 양은솥 안은 [illegible] 벌써 며칠전일이니 혼자서 벌써 뛰기전엔 볼 일이 없었다. [illegible] 방 한칸 부엌 [illegible] 세으르게 사 [illegible] 노무시 한심스럽기도 하려니와 심심해서 못견딜 지경이었다.

부뚜막으로 난 쪽문이 벌컥 열리면서 부스스한 순자의 머리가 나왔다.

『언니 저기서 뭐 하고 있어?』

『그냥…』

오목이는 잘못한 것도 없이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어유, 어유 춥숴, 따뜻한 방 놔두고 뭐하러 그 한데 부엌에서 떨어요? 누가 보면 내가 언니 구박한줄 알겠다.』

『보긴 누가 본다고 그래?』

『사람만 안보면 제일이유? 하늘이 내려다보시지』

『하늘?』

오목이는 서글프게 웃었다. 어제 아침나절엔 방에서 빨래 좀 꿰매려고 반짇고리를 찾다가 또 구박을 맞았었다. 제발 아침잠 좀 자게 인기척 내지말라고. 순자의 살림엔 반짇고리 같은건 숫제 없었다.

『아유 아유 청승, 몸뚱이가 고드름이네. 저놈의 부엌은 냉장고라니까』

순자가 요밑으로 오목이를 끌어당기면서 혀를 찼다. 오목이는 요밑의 따끈한 구들목에 등을대고 드러누우면서 으스스 진저리를 쳤다.

『부엌이 냉장고니 좀 좋으니』

『언니도 어리석긴. 여름에도 냉장고를 알아? 푹푹 삶아내다구. 올 여름엔 냉장고 하나 들여놓지 않으면 이집에서 못살아』

『냉장고 들여놓기전에 방을하고 싶이나 좀사오련』

『어련쇼, 내가 꽤 언니같은 줄 알아』

순자가 개키지않고 밀어놓은 이불밑으로 방바닥을 더듬더니 담배갑을찾아내서 담배를 한가치 꼬나물고 푸욱 푸욱 연기를 뿜어댔다.

오목이는 동안 속이기위해 드러누운채 이런 순자를 망연히 쳐다보면서 저애가 도대체 몇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아원에서 순자는 오목이보다 두살 아래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오목이가 언니 노릇을 했었다. 그렇지만 고아원 원생들 나이를 누가 믿는담. 이런 안하던 의심을 하게 된 건 미순이네를 나와 고아원 친구중엔 제일 형편이 낫다고 소문난 순자의 셋방을 천신만고 찾아내서 순자를 만나자 마자부터였다.

그때 순자는 막 저녁 화장을 끝내고 출근하기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언니소리 듣기가 민망한 전도로 까마득한 손위 여자로 보였다. 따로 방 얻고 취직할 때까지 의탁하고 싶다는 오목이의 부탁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마음 푹 놓고 얼마든지 있으라고 너그러운 아량을 보일때는 더욱 의지가 되어 오목이는 숫제 고아시절로 돌아간것처럼 가련해졌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流星의 賊 <40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②

적은 성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세남천(細南川)을 막아 급수원(給水源)을 끊어버리는등 갖가지 계책을 썼다.

그러나 권율의 군사와 홍계남의 군사는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적의 포위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적은 나아가 공격할 기력을 잃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지에 교착되어 자멸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드디어 적은 한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계남과 권율군은 그 퇴로를 급습하여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로 인해 적은 분산배치하고 있던 적을 거점중심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때 그 일대의 적세(敵勢)는 다음과 같다.

한성부 관천현 용인현은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의 군이, 죽산부엔 복도정치의 군이, 양지현엔 중천수성(中川秀成)의 군이, 음성현엔 생구친정(生駒親正)의 군이, 조령엔 봉수하가정(蜂須賀家政)의 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는데 주둔지 이외의 곳에 적병이 나타나는 자취는 없어졌다. 이로 인해 적 주둔지 이외의 백성들은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계남이 권율에게 건의했다.

『지금 한성의 적을 공략할 순 없는 터이니 보다 서울에 근접한 산성으로 진을 옮겨 후일을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권율은 즉석에서 계남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을 행주산성으로 옮기로 했다. 권율군이 이진(移陣)할때 홍계남군은 소모사 변이중(召募使 邊以中)과 더불어 시흥부근에서 광교산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지킴으로써 그 엄호의 역할을 다했다.

이것이 후일 행주산성의 대첩을 있게한 것이다.

계남은 그후 수일동안 권율과 같이 기거하면서 모여드는 정보를 검토하고 앞날에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런일에 피차 사람 상조하는 사이가 되었다.

지난 10월초의 진주성 공방전이 화제에 올랐을때 권율은 이런말을 했다.

『경상 우병사 유숭인이 병 1천명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달려 갔는데 진주목사 김시민(晉州牧使 金時敏)이 그의 입성을 거절했다. 부득이 유숭인은 진주성외에서 싸워 죽었어요. 그 때 사천현감 정득열(鄭得說)과 가배량권관 주대청(加背梁權管 朱大淸)도 같이 전사했다는 것인데 특히 주대청의 활약이 눈부셨더군. 그러나 저러나 진주성을 지키는데 성공한 김시민의 공로도 컸지만 유숭인의 공로도 인정해줘야 해. 유숭인이 없었더면 [illegible]의 가세(加勢)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적세의 소모도 없었을 것이오. 진주성에서 적군이 모질게 당했거던. 그런 뜻에서 김시민이 운이 좋았던 거여』

『목사가 상관인 우병사의 입성을 거절한다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고 계남이 물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를테면 하극상(下剋上)이니까.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승전할 수 있었으니 전투란 건 묘한거라. 만일 유숭인이 진주성으로 들어갔더라면 지휘권은 마땅히 유숭인이 맡아야 할게아닌가. 그런데 유숭인은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온 부하는 물론 진주성을 방어하고 있는 진주 상병이 마음으로 승복할 사람이 아니었거던. 그가 지휘했더라면아마 진주성은 지키지못했을 거라…』

연합친선골프대회

날짜 : 1982년 6월26일(토요일)11시 45분
장소 : KLEINBURG GOLF CLUB,
(프로, SHOP 893-1020)
HWY 7에서 HWY 27 북쪽으로 5마일 지점
(Nashbille Rd에서 좌회전 0.6Mile)
회비 : 30불(Greenfee & Dinner)
시상: Annual 트로피는 1등에 한함.
Gross(1·2·3·4·5등)
Net A조(89이하)
B조(90~99)
C조(100이상)
각조 1·2·3등
▲Lady 1. 2. 3등 ▲Nearest To hole
▲Longest Driver ▲Most Honest
기타 상품 다수
신 청: 당일 현장
연락처: 최광훈 292-2988
오현표 225-9595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

"영화의 밤"

6.25! 32주년

본 회에서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영화를 상영코자 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제 목
1. 최홍희, 최덕신 북한방문 기자회견
(꼭 보시라!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여기는 배반자들의 딴 행울…)
2. 달려라! 풍선아(최신 인기 한국영화)(1시간30분상영)

일시시 : 1982년6월19일(토) 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
입장료 : 무료

주최 : 승공문화협회

고대 교우회

야유회및 낚시대회 공고

야유회및 제3회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싱그러운 초하의 신록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시고 선후배를 상면하며 즐거운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6월20일(일) 오전10시
장 소 :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Air Port Rd. North로 가시다가 Hwy 7으로부터 20분 달리시면 오른쪽에 위치함)
참고사항 : 점심및 낚시도구 지참
연락처 : 회장 서 준 경(☎ 621-4890)
총무 정 필 주(☎ 661-1819)

고려대학교 교우회
토론토지부 회장 서준경

외래語에서 온 용어·卑語·俗語등

순수한 우리말로 바뀐다

문교부、「국어순화세칙」확정 千6百54개 어휘담아 配布

정부는 8일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고있는 어휘가운데 일본어나 중국어등 외국어원(源)에서 나온 용어나 비어, 속어등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쓰는것을 골자로한 「국어순화세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일반국민들이나 정부의 각기관에서 공문서로 사용하고있는 용어 가운데 대상어휘 1천6백54개를 국어로 바꿔 수록한 새용어집을 만들어 정부각부처와 언론기관, 각급학교등에 배포하는 한편 일반국민들도 이를 활용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各位→여러분 별도→따로 모델하우스→본보기집 가께모찌→겹치기 데이타→자료 見出紙→찾음표

정부는 우리나라말 가운데 한자어 일본식한자어 외래어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왜곡사용, 순수한 국어가 퇴색하는 경향이 짙자 이를 막고 순수한 우리국어를 계통있고 순수한 것으로 가꾸기위해 지난76년 국어순화계획을 처음 마련, 대통령령으로 「국어순화운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문교부주관으로 그동안 국어심의회, 각부처의 실·국장등 실무자, 각계를 망라한 전문가등 31명을 동원, 6년동안의 심의를 거친끝에 이번에 순화세칙을 확정한것이다.

문교부가 주관해만든 「국어순화세칙」에 의하면 순화대상용어를 저항감의 정도와 통용되는 정도에 따라 4가지로구분, ①완전히 새롭게 바꿔 사용해야할말 ②바꾼말을 사용토록 권장하는말③ 쓸수있는말 ④순화대상어로 곧 바꿔지게되는말로 나누고 그러나 心得 申込 와리깡등 일본식한자어나 일본어를 어원으로한 말은 완전히 새롭게 바꿔 앞으로는 사용치 않도록하는것.

특히 한자 외래어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중에서 「無所不知」「共히」「爲計」등 어렵고 낡은투의 한자어는 우선적으로 바꾸며 외래어중에서도 라디오, 잉크, 택시등 꼭 필요해서 쓰는 말을 제외하고 슈거, 페이 (지급)등 필요이상으로 쓰는 말은 우리말로 바꿨다.

또 순화의 방법은 저속하지않은 우리의 고유어 (표준말)로 바꾸되 적절한 말이 없을때는 「保合勢→주춤세, 멈춤세」등과 같이 새로만들어 쓰고 표준말이 없을때는 옛말이나 사투리가운데서 찾아 쓰도록했다.

한편 이 세칙에하면 외래어를 우리말로바꾸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이터 (야간경기) 레프리 (심판)등 전문용어와 국제성을 띤 용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는 그대로 사용키로했다.

이번 국어순화계획에 따라 새롭게 바꿔지는 말을 관련부처별로 보면 총무처의 경우 공문서등에서 사용해온 한자투의 말이많고 농촌진흥청의 경우는 한자어가 많은반면 문공부의 경우는 영화 연예계에서 해방전부터 그대로 사용해온 일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바꿔지는 일본어원의 말은 전체1천6백54자중 3분의 1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바꿔지는말중중요한것을 관련부처별로보면별항과같다.

「국어순화세칙」에 따른 새용어중 일부
※( )속은 새용어

◇총무처=가해 (加害·해를끼침)각위(各位·여러분) 견출지 (見出紙·찾음표) 계출 (屆出·신고) 고의로 (故意로·일부러) 공복 (公僕·봉사자)관리(官吏·공무원) 금명간 (今明間·오늘내일사이)금반(今般·이번) 데이타 (자료) 모델하우스 (본보기집) 목차 (目次·차례) 미스 (잘못) 발본색원 (拔本塞源·뿌리뽑다) 범례 (凡例·일러두기) 별도 (別途·따로) 세리 (稅吏·세무공무원) 세미나 (발표회)소직은(小職·저는) 시달하다 (示達·알리다)아프터서비스(사후봉사) 알리바이 (현장부재증명) 엄단함 (처벌을받습니다) 연이면 (然이면·그러면) 정정 (訂正·바로잡음) 체크리스트(대조표) 팁 (봉사료) 패용 (佩用·달기) 호치키스(종이찍게)

◇농촌진흥청=가사 (假死·기절) 가토 (家兎·토끼) 각사탕 (각설탕) 감별추 (鑑別雛·가린병아리) 강력분 (強力粉·차진밀가루) 거세 (去勢·불치기) 건초조제(풀말리기)계육(닭고기)구제(驅除·없애기)넥타(과일즙)대퇴(넓적다리)묘(苗·모종)박(粕·깻묵)발정 (암내) 생사 (生絲·생실) 영계 (약병아리)초지(草地·풀밭)

◇특허청=생에너지 (省에너지·에너지절약) 취입 (吹込·불어넣기)

◇문공부=가께모찌 (겹치기) 도리나오시(다시찍기)돔뿌(첫머리)만땅구(초만원) 삼마이 (희극배우) 빵꾸(구멍내기) 신마이(애송이) 후앙 (송풍기)

◇수산청=가고 (箱子·바구니) 노바이(안팎기)당고 (담합·짬짜미) 뎃끼리 (적중값) 맘보 (셈) 모구리 (잠수부) 야마시 (속임수) 후탐뻥 (셋배)

"한국일보통해 世相알지요"

「젊음과 패기」에 반했다는 本紙創刊독자 全澈翰씨

올해 환갑을 맞은 全澈翰씨 (61·서울中區中林洞331의4)。그는 지나간 28년의세월을 한국일보라는 창틀을통해 세상을 보며 살아온 창간독자의한사람이다。전후의혼란이 계속되던 지난54년6월9일32세의나이로 한국일보의창간지면과 인연을 맺은이후 청·장년기를 다보내고 노년기에 이르도록 그는 한국일보지면과 호흡을 같이 해왔다。그러나 그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놀라운 한국일보 수집가이다。단 하루를거르지않고 그동안 수집해놓은 한국일보의 부피가 그의 거처를 터져나갈듯 메우고있다。全씨가 한국일보의 수집을 시작한것은 신문을 구독한지 만5년여가 지난60년2월。그후 22년을 단하루의 낙지도없이 완벽하게 모았다。그는 한국일보를 수집하면서 어느덧 이지면을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있었다。

愛讀이 蒐集으로… "이제는 子息처럼"

함남 北靑이 고향인 全씨는 1·4후퇴때 월남, 강원原州에 살면서 우연히 한국일보창간호를 만나게 됐다。『그때 한국일보의 창간은 우리사회의 큰 「희망」이었어요。가십지와는 판이한젊음과 패기에 모두가 반했읍니다』그는 창간시절의 지면을 이렇게 회고했다。

全씨는 60년2월 친구인재일교포로부터 좋은 국내신문을 모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에게 최고의 신문은 물론 한국일보였다。이때부터 全씨는 한장의 신문도 버림없이 수집하기 시작했다。수집1년이 지나도 수집을 부탁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나 어느새 하루하루의 생생한 역사를 보존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있던全씨는 수집을 중단할수 없었다。수집1년만인 61년 2남星桂군이 태어났다。쌓여가는 신문과함께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코흘리개 두아들이 신문을 구기거나 찢을나치면 全씨는 크게 꾸짖고 어린아들에게 『내가없으면 너희가 계속 신문을 수집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처음엔 부인申天萬씨 (48)가 『사소한 일에 별신경을 다쓴다』고 핀잔을 주었으나 全씨의 뜻이 해가갈수록 굳어짐을 알고는 대신 신문을 챙기기도했다。사업때문에全씨가족과떨어져 경북榮州, 경남馬山등지로 10여년간 돌아다니는동안에도 가족들의 신문수집은하루도 거르지 않았다。어느새 한국일보의 수집이 집안의가장중요한 일처럼 돼버린 것。장남光烈씨(26)와 2남星桂군은 한국일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金씨부부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읽고세상을 알게 되었다。

어쩌다 신문이 배달되지않을땐 직접 보급소에찾아가 신문을 구해온다는 光烈씨는 『아침에 한국일보를 읽지않곤 하루를 시작할수 없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보고난 신문을·모아두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다』는 말로 대신한다。

이말은 집안 곳곳에 쌓인 신문을 보면 실감이난다。날이 갈수록 수집한 신문의 부피도 늘어나 지난74년 原州에서 서울로 이사올땐 이삿짐의 반이 신문묶음이었다는 게 全씨의 고백이다。서울에 올라와서도 두어번 집을 옮겨다녔지만 그동안 고이 모아온 한국일보는 결코 포기할수 없어 항상 이삿짐의 주요품목이 되곤했다。

이처럼 한국일보속에 묻혀사는 탓인지 全씨 부자는 한국일보에대해 남다른 애정과 주문도많다。全씨는『四海로 뻗어가는 한국인의 위치와 생동하는 사회면기사로 한국일보가 젊다는 건 절절히 느낀다』고했고 아들 光烈·星桂형제는『한국일보는 성실한 기사로 호감을 사는것 같다。최근 일요판의 색다른 지면구성등으로 신선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젊은세대, 근로자, 못가진자를 위해서도 편견없는 지면을 할애해달라』고 앞날의 지면에 대해 따끔한 주문을 아끼지 않는다。【方明俊기자】

◇創刊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창간호부터 하루도 빠지않고 한국일보를 받아 보았던 全澈翰씨。그는 60년부터 22년간 하루도 안거르고 한국일보를 모아 보관하고있다。

轢傷者 또치고뺑소니 뒤쫓던택시가 붙잡아

貞陵洞 횡단보도서

8일새벽0시15분께 서울城北區貞陵3洞653 高麗중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을 무시, 술에취한채 서울4다1404호 포니승용차를 몰고가던 馬承鎬씨(27·사업·서울西大門區弘濟3洞273의2)가 길을건너던 이동네 李元益씨 (48·회사원·서울 城北區貞陵3洞642의8)를 치었다。

사고직후 馬씨는 피해자李씨가 6m가량 앞으로 퉁겨나가 쓰러져있는것을 피하지않고 다시치어 숨지게 하고 北岳터널쪽으로 달아나다가 현장을 목격하고뒤쫓아간 서울4하6517호 포니택시 운전사 姜호림씨 (36)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부2명 뺑소니차에 重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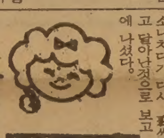
清州-서울國道… 종류未詳

【忠州】길가던 2명의 농부가 종류미상의 뺑소니차량에 차례로치여 모두 중상을입었다。

7일하오8시10분께 충북中原郡利柳面檢丹里앞 국도에서 이마을의 權순민씨(26)와 裵홍섭씨 (27)등 2명이 1백여m 거리를두고 뺑소니차량에 각각치여 중상을입은채 쓰러져있는것을 朴종근씨 (26·利柳面萬井里)등 주민이 발견, 충주시내 현대병원등지로 이송, 가료중이나 모두 중태이다。

權씨는 이날 인근에 있는 논에서 모내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도중이었고 裵씨는 이웃마을에 다니러가다가 각각 변을 당했다。

경찰은 청주—서울방면을 향해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등 소형차량이 權씨를 먼저 친후 유리창이 깨진채 뺑소니치다가 다시 裵씨를 치고 달아난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고객株式 13億횡령

도망친 東和증권常務 전국에 手配

서울시경은 8일 東和증권小公洞지점 주재상무 朴健一씨(38·서울恩平區新寺洞11의8)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고객인 S공영전무 전모씨등 8명이맡긴 주식 9억4천3백99만원어치를 빼돌린것을 비롯해 주식거래자인 高모씨가 위탁입금시킨 1천만원중 9백80만원을 두차례 허위출금청구서로 인출해 가로채는등 모두 13억6천만원을 빼내쓴 혐의를 받고있다。

회사측은 사고가난뒤 1차 자체조사끝에 朴씨에의해 피해당한 구좌가 최소한12개구좌 9억5천만원상당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증권감독원과 서울지검에정밀수사를의뢰했다。

朴씨는고객들이통장과도장을 함께 맡기는 것을이용, 소액구좌를 개설하고 원장에 없는 입금사실을 허위로통장에 기재한뒤 돈이나주식을교부받거나 위탁자출금청구서에 가짜 도장을 적어 돈을빼는 수법을 써왔다。

자동차 쌍클랙슨등 不法부착물을 團束

치안본부는 8일부터 자동차뒤유리의 차양막과 선팅、짐틀, 쌍클랙슨, 비상라이트, 무전안테나등 불법부착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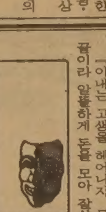
차양막과 선팅, 차뒤유리에 장치된 서리와 습기제거용의 열선(熱線)·차외부에 부착한 처마형 차양막과 고속·관광·시외버스의 커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되는 차량은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恨

姻戚에 아내와 두딸앗긴 李鍾善씨

"人生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게 무엇입니까。제인생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한옷방사이에 의해 잃고 난 뒤 李鍾善씨 (43 사진)는 「두딸이 꽁꽁에 떠셔」며칠을 보냈다。

그는 지난3일 새벽 안방과 공부방의 피투성이 현장을 첫 목격한이래 엄청난 충격을 미처 아무릴 새없이 외아들과 洪垂의 참상을 지켜봐야 했다。그는 아들의 상처를 보면서 내내 범인의 극악함에 치를떨었다。그런데 그 범인이 잡고보니 바로 외사촌동생 「永泰삼촌」이었다。

『아내는 고생을 헤어나지 못한 끝이라 알뜰하게 돈을 모아 잘살려고 몸부림쳤읍니다。하지만 그때문에 살육이의 손에 죽어야한다면 성실하게 산다는게 무슨 가치가 있는것입니까』

스무살을 갓넘긴해에 흙토상경, 여관·음식점·술집종업원을 전전하며 밑바닥인생을 산끝에 이제겨우 「살아볼만」하게 된 李씨로서는 아내와 두딸을 잃은 동시에 20여년의 「지난인생」을 한꺼번에 빼앗긴 셈이됐다。

처음 만났때 아내 李君子는 그에게진안·학력등이는모로보나 「과분한」규수였다。그러나李씨의성실성이 아내를 감동시켰고 반대하던부모들의 마음도 되돌릴수 있었다。

월세 3만5천원의 단칸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가난한 부부였지만 남다른 금술로 차츰차츰 一家를 이루는 보람을 느꼈다。

장녀 恩愛(14)가 국민학교에입학할때는 아버지의 직업을 떳떳이 밝히지가 못했던 가슴아픈추억도 있었다。아내와 장녀는 그런 아픈 추억을 씻지못하고 먼저갔다。

술장사직업때문에 매일밤 자정을 넘겨서야 귀가, 남편과 아빠노릇못 해준것같아 더욱 더 그들에대한미련과 자신에대한 한이 크다。

李씨는 범인金이 조카인 洪垂에게 범행직전 산수가감산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한번 몸을 떨었다。그러나 한번 만나봐야 한다고 느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범인을 만나러간 그는 피를 토하듯 「永泰」라고 불러놓고는 말을 잇지못했다。태연하기만 하던 범인도 이순간만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듯 했고 그는 말없이 되돌아 경찰서를 나왔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자는 갑자기 울고싶은 충동을 뿌리 칠수가 없었다。【趙在鎬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契깨져 主婦자살

6일상오10시께 서울道峰區上溪4洞山152 趙男文씨 (44·미장공) 집안방에서 趙씨의 처 文順德씨 (38)가 계주가 운영해오던 50만원짜리 계가 깨진것을 비관,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전共榮총무이사등 2명保釋신청제출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됐던 전共榮토건총무이사 邊衡佑(45) 사채업자 趙祥弼피고인(45) 등 2명이 8일변호인을통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냈다。

변호인들은 보석신청서에서 피고인들에대한 공소사실은 죄가되지않고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되지않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邊피고인은 증권거래소에서의 자신의 공시행위가 내용이 정확지 못할뿐 증권거래법에 규정된「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법인체 共榮토건이 증권거래소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데대해 대표이사가 아닌 총무이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力道기구·헬드클럽用具 異色전시회

前力道聯전무 故張喜榮씨未亡人 李順子여사

남편은 떠났어도 뜻은살아있다。한국 역도 발전에 헌신하다가 지난해 12월19일 세상을 떠난 故 張喜榮 역도연맹전무이사의 미망인 李順子여사(36) 는 9일부터 18일까지 롯데 쇼핑센터 5층 특설운동기구 전시장서 남편의 체취가담긴 역도기구및 헬드클럽용구 전시회를 갖는다。

이날 전시되는 30여점의 역도·헬드클럽용구는 故 張씨가 4년전부터 경영해왔던 관악철공소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83의12)에서 직공 20여명이 정성들여만들어낸 작품。

李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충격으로 한때 몸져 들어누었으나 1남2녀를 아버지없이 훌륭히 키우겠다고결심, 남편이 경영해온 철공소를 자신이 맡아운영하고 있다는것。

『별다른 뜻은 없어요。역도를 사랑했던 남편에게아내가 드리는 조그만 정성이에요』李여사는 질이 좋은 역도기구를 만드는것이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길이라고 말한다。

8旬부친 창고에監禁 학대

2년간 음식도 제대로안줘

며느리에 拘束令狀

【大邱】경북 漆谷경찰서는 7일 漆谷郡倭舘邑倭舘洞233 대구약국주인 吳冀根씨 (47)를 존속감금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吳씨의 부인 崔海淑씨 (46)를 존속학대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吳씨부부는 하반신 불구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吳判鳳씨 (81)를 집에서 7백여m 떨어진 빈창고 건물안에 있는 숙직실에 혼자 눕혀두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등 온갖 학대를 해왔다는것이다。

吳씨는 吳노인을 감금한창고자리에서 슈퍼마키트를 경영하다 동생의 약국을 지난79년12월인수, 이사하면서 吳노인을 혼자남겨뒀는데 吳씨의 부인 崔씨는 이때부터 吳노인을 단한번도 찾아보지않았다고 한다。【聯合】

민원서류 우편취급 7월부터 대폭확대

민원서류우편취급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확대 실시된다。

체신부는 8일 대상기관을 36개 정부각기관으로 늘리고 취급민원서류의 종류도 현재의 20종 (내무부소관)에서 1백58종으로 대폭확대、전국우체국에서 취급하도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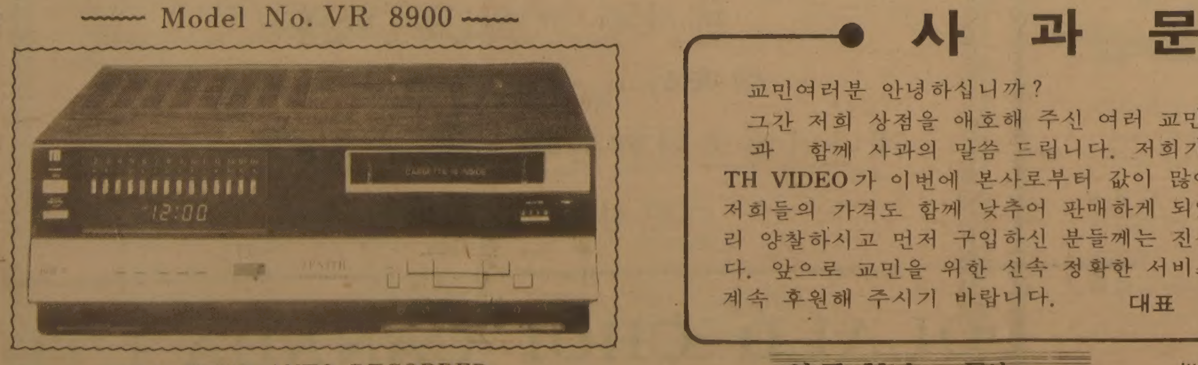
확대취급하게될 대상민원서류중에는 납세완납증명·공사립학교졸업증명·성적증명·토지건물등기부등본·병적증명서등 이용빈도가 높은것들이 포함되어있다。

민원서류우편제도는 가까운 우체국창구에 비치된 민원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민원우편봉투 (20원)에 민원발급수수료와 왕복등기속달우표 (9백20원)을 넣어 보내면된다。

특별할인대매출

ZENITH

—— Model No. VR 8900 ——



~~$1,199.95~~

전 세일가격 ~~$1,099.00~~

특별세일 $899.00

● 24 HOUR AUTO RECORDER
● PICTURE SPEED SEARCH
●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사 과 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상점을 애호해 주신 여러 교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ZENITH VIDEO가 이번에 본사로부터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면서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 정 운

한국 Video Film Rent도 취급합니다.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朴成華「密集」뚫고 첫砲門

대통령盃 國際축구 한국、印尼에 어렵게 3골

단조로운攻擊 번번이 막혀

前後半 막판에 崔淳鎬2골

【大邱=安秦煥기자】한국대표 축구팀은 7일 大邱시민운동장서 야간경기로 벌어진 제12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3일째 예선A조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물리쳐 1승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3-0으로 물리쳤지만 짜임새있는 공격패턴을 보여주지못했다.

양날개인 丁海遠과 邊炳柱도 예리함을 보여주지못했고 CF 崔淳鎬의 문전헤딩에 촛점을 마춘 센터링작전은 인도네시아의 밀집수비를 더욱 강요했을뿐 효과를 거두지못했다.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하던 한국은 스위퍼 朴成華를 공격진에 올리고 崔景植이 기대이상으로 활약, 돌파구를 열었다. 전반 41분 한국은 인도네시아 문전 18m지점서 프리킥을 얻어 趙廣來가 왼쪽으로 가볍게 밀어주자 李康助가 골 에리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스, 朴成華가 뛰어들면서 슛을 성공시켰고 44분에는 崔淳鎬가 코너킥으로 문전에 높이뜬 볼을 점프 헤딩 슛, 2점째를 기록했다.

◇제3일전적

한국대표 3(2-0 1-0)0 인도네시아 (1승1패)(1승1패)

아인트호벤 8(4-1 4-0)1 바레인 (2승)(1패)

아인트호벤은 바레인에 소나기슛 8-1

한국은 이날 전반 시작부터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무수한 슈팅을 날렸으나 인도네시아의 밀집방어를 뚫지못해 골을 넣지 못하다가 전반 종료 4분전 프리킥으로 빠져나온 볼을 朴成華가 득점에 연결, 1-0으로 앞서고 전반이 끝나기전에 崔淳鎬의 문전 헤딩골로 2점째를 기록, 승리를 굳혔다.

한국은 후반종료2분을 앞두고 崔淳鎬의 득점으로 3-0을 만들었다.

이날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은 FW 젤스가 4골을 넣는 대활약으로 약체바레인을 8-1로 대파, 2연승으로 단독선두를 고수했다.

◇朴成華의 대포알 헤딩 A조 한국대표와 인도네시아의 대전。전반 수비에서 공격진으로 위치를 바꾼 朴成華⑥가 인도네시아 문전서 헤딩슛을 날리고있다。朴은 전반 41분 프리킥에서 흘러나온 볼을 가볍게 차넣어 선제점을 올렸다。【大邱=金龍逸기자】

위급전화 911

朴宰鎬 호머 信號로 逆轉劇

中高야구選手權 大田高、江陵꺾고 2回戰에 7-5

天安北一은 東商 2-0격파

불발로 애태우던 4번타자 朴宰鎬이 8회초 2점호머로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3번 宋寅式이 9회초 결승3루타를 날려 大田高가 江陵高에 7-5로 역전승, 제37회 전국중고 야구선수권대회 2회전에 진출했다。

8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4일째 大田高와 江陵高의 대전은 해프닝이었다。

江陵의 선제 리드도、大田의 역전도 뜻밖의 드라마。江陵은 2회말 大田의 수비 실책과 포볼、보내기 번트、스퀴즈번트로 안타없이 1점을、3회말에는 집중 3안타와 포볼、패스트볼로 3점을 얻는등 7회까지 5-2로 리드했다。

8회초 大田의 선두 3번 宋寅式이 데드볼로 나가고 4번 朴宰鎬이 좌중월 2점 호머를 날리며 사태는급변、큰 대회 경험이 적은 江陵야수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선발李東原에 이어 계투한 徐善國이 8회말 고비를 막아냈으나 5-4로 뒤쫓기는 심리적 압박에 江陵수비진은 9회초 재공에 무너졌다。

大田의 선두 8번 李文載가 친땅볼을 江陵유격수 權五吉이 글러브를 끌어올리다 볼을 떨어뜨렸고 보내기 번트와 땅볼로 주자는 2死3루。2번 姜舜成의 타구도잡을수있는 3루쪽땅볼이었으나 江陵3루수 崔永滿이 땅에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못해 좌전안타로 만들어 주고 5-5의 동점을 허용했다。

기세가 오른 大田의 3번 宋寅式은 통쾌한 역전결승우월 3루타、4번 朴宰鎬은 좌전적시타를 터뜨려 7-5로 승부를 뒤엎었다。

다이겼던 게임을 놓친 江陵高 林相俊감독은 대회본부에 大田高가 忠南지역 예선을 거친팀이 아니라고 때늦은 항의를 제기하기도했다。그러나 大田高는 이미 北一高와 함께 예선없이 忠南대표로 참가가 확정됐기때문에 이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天安北一高는 3회초 8번 투수安聖洙、2死후 1번 趙龍鎬의 안타로 선제점을올리며 東大門商高에 2-0으로 승리、2회전에 올랐다。北一高는 8회초에도 安聖洙가 2루타로 돌파구를 열고 東大門商의 수비실책으로 홈인、2점째를 올려승리를 굳혔다。

北一의 에이스 安聖洙는 교묘한 체인지 오브 페이스로 東商 공격을 4안타、무실점으로 완봉 했으며 유격수 書良根은 폭넓은 수비로 어려운 볼을 처리했다。

◇제4일1회전

대전고	000	002	023	7
강릉고	013	000	100	5

▲홈런=朴宰鎬(8회·2점·대전)

북일고	001	000	010	2
동대문상	000	000	000	0

프로야구

金貞洙 回生드리런

롯데、해태눌러 8連敗늪 탈출

왼손강타자 金貞洙가 8회말 역전 3점 호머로 연패의 늪에서 롯데를 구했다。

8일 프로야구 釜山경기서 롯데는 3-2로 뒤지고 있던 8회말 無死서 金貞洙가 우월 결승3점호머를 터뜨려 제과라이벌 해태 타이거즈를 5-3으로 격파、8연패만에 간신히 1승을더했다。롯데는 11승20패를 기록、14승17패의 4위 해태에 아직도 한게임차로 뒤져있다。

이날 해태서는 6번 金一權이 2회초 선제2점 홈런을 날렸으며、롯데에서는 5번 金成琯이 4회말 동점 2점 홈런、3번 金貞洙가 8회말 승부를 뒤엎는 3점 홈런을 날렸다。

◇8일전적

◆부산

해태	020	010	000	3
롯데	000	200	03×	5

◆홈런=金一權(2회·2점·해태)金成琯(4회·2점·롯데)金貞洙(8회·3점·롯데)

◁전기중간순위 (8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OB	23	7	·767
②	삼성	21	12	·636
③	MBC	15	16	·484
④	해태	14	17	·452
⑤	롯데	11	20	·355
⑥	삼미	9	21	·300

本紙와 獨占계약 開幕戰부터

豫想記·경기評·스타활약상등 興味있게 풀이

한국일보·日刊스포츠는 日本의 「電通」을통해 축구황제 펠레와 특별계약、오는 13일 스페인서 막을 올리는 82월드컵축구대회에 관한 「펠레 리포트」를 독점연재합니다。70년 월드컵대회에서 사상처음 3連覇를 이룬 브라질의 주역으로 「검은 진주」로 불리기도 한 펠레는 세계24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스페인 월드컵축구의 예상기、경기평、스타플레이어및 코치들과의 회견기등 특별리포트를 10여회에 걸쳐 제공하게 됩니다。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전략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선수들의 활약상을 평가하는 「펠레 리포트」는 약 한달동안 펼쳐지는 월드컵축구 시리즈를 더욱 흥미있게、또한 깊이있게 풀이해줄것으로 확신합니다。日本 소니(SONY)와의 계약에 의한 이 「펠레 리포트」는 한국을 비롯 세계 권위지에 동시에 공급되며 특히 개최국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의 「디아리오 16」紙를 비롯 11개신문에 게재되는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있읍니다。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와 자매지 日刊스포츠및 코리아·타임스가 독점계약을 맺고 월드컵축구 개막과 더불어 연재합니다。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축 개점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불루어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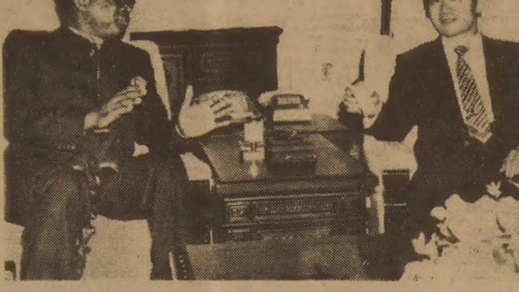
폐사와
폐사의 고객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줄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불루어지점의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DOLALD CHOI CANADA LTD.

627 COLBY DR.
WATERLOO , CANADA

資源개발·民間合作 권장

韓·자이레 頂上회담 經協증진등 협의



◇한국과 자이레 友誼다져 全대통령이 7일하오 자이레공화국의 모부투 대통령을맞아 頂上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하고있다.

交易量확대 共同번영 摸索

平和·安保 바탕…모든分野 협력

全斗煥 대통령은 7일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아프리카 자이레공화국의 모부투·세세·세코 대통령을 맞아 韓·자이레 정상회담을 갖고 東北亞및 아프리카 정세와 상호협력증진 방안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하오 4시20분부터 1시간 동안의 單獨회담을포함, 1시간 15분동안 계속된 정상회담에서 兩國원수는 兩國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黃善必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모부투大統領 어제來韓

두나라원수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資源개발등을위한 민간기업간의 合作 권장, 交易量증대, 기술硏修, 경제발전경험의 傳受등을 통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 韓半島의 평화통일정책을, 모부투 대통령은 아프리카내의人種차별철폐정책을 설명했으며 이에대해 兩國원수는 상대방의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설명했다고 黃대변인은 전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자리에서 『모부투 대통령의이번訪韓을 계기로 경제협력, 통상증대, 문화교류등 모든분야에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증대될것을 확신하며 兩國이 서로보완해 나가면 빠른시일안에 선진국대열에 진입할것을 굳게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韓國측에서 劉彰順국무총리, 李範錫외무장관, 咸秉春 대통령 비서실장, 許和平정무제1수석비서관, 李鍾業駐자이레대사가, 자이레측에서는 마이츠르·요카外相, 시토엔·세티특별보좌관, 시토엔·보카나 경제기획상, 룸보駐韓대사등이 배석했다.

모부투 대통령일행은 이에 앞서 이날상오11시30분 자이레特別機便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全대통령 내외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모부투 대통령의 訪韓에는 요카외상을 비롯한 공식수행원 34명등 1백46명이 수행했다.

모부투 대통령은 訪韓 둘째인 8일엔 국립묘지를 찾아 獻花하고 서울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후 ○○部隊를 방문하며 이어 經濟 4團體長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농수산물 加工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레바논 전면攻擊

탱크 2百대·2萬명동원…4邑장악

노르웨이平和유지軍 武裝解除

【베이루트6日UPI合同=聯合】레바논내 팔레스타인 거점들을 다시 맹폭해온 이스라엘은 6일 레바논에 대한 陸·海·空 전면공격을 감행, 2만여명의 이스라엘지상군은 유엔平和유지군의 경비구역을 돌파하고 레바논남부 깊숙이 진격, 팔레스타인 주요전진기지 보포트성을 장악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게릴라, 레바논 좌익민병대및 시리아軍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베이루트의 유엔대변인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투기와 해군미사일발사 함정의 지원하에 탱크1백대와 장갑차 1백대를 앞세우고 중부해안및 남동부등 3개방향으로 남부레바논지역을 침공했으며 이스라엘공정대는 이스라엘에서 25㎞떨어진 리타니강 북부의 2개 전략지역에 투입되어 산악과 해안의 요충지대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WAFA통신은 해안방향으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은 티레항에 입성, 팔레스타인 게릴라및 좌익민병대와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으며 리타니강 북부지역에 낙하한 이스라엘 공정대는 나바티에로 진격중이라고 말했다.

WAFA통신은 또 이스라엘 전투기2대와 헬리콥터 2대가 팔레스타인군에 의해 격추되고 이스라엘 장갑차 42대가 파괴됐다고주장했는데 이스라엘측도전투기1대와 헬機1대가 격추됐음을시인했다.

시리아군성명은남부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이 베카계곡에 주둔한 시리아軍진지로 진격함에따라 시리아군은 이들에대해 포격을 가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군은 하스바야 자르마크및 바르구트등 4개 촌락을 장악하고 시리아군 진지에 포격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레바논 방송은 또 남부레바논의 하스바이야 부근으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은 이지역에 주둔한 유엔평화유지군의 노르웨이군을 무장해제했으며 노르웨이軍과 이스라엘군의 충돌로 노르웨이군 1명이 전사했다고 말했다.

安保理 撤軍결의

【유엔本部6日UPI=聯合】유엔安保理는 7일상오(한국시간) 레바논을 진격침공한 이스라엘군의 무조건, 즉각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5대0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리아軍 맞서出戰 레바논주둔 시리아軍이 6일 이스라엘軍의 침공지역으로 이동하고있다. 【칼레 6日AP特約=聯合】

北傀, 我軍초소 총격

東部前線DMZ 어제下午 8分間 기관총으로

올 세번째 被害없어

7일 하오3시38분께 강원 高城郡縣內面猪津里 서북방 8·7㎞지점 비무장지대의 북괴군 초소에서 국군초소를 향해 기관총사격을 가해왔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날북괴의 총격은 8분동안 계속됐으며 아군은 자위를위해 즉각응사했는데 국군의피해는전혀없었다.

북괴는 지난4월21일(華川북방26㎞지점)과 5월17일(鐵原북방14㎞)에도비무장지대내에서 기습적인총격을가해 왔었다.

領袖회담議題등 협의

3黨총장 오늘 첫모임 參席범위論難예상

일부長官 바뀔지도

與野領袖회담추진을 위한 3黨 사무총장회담이 8일하오2시 국회의장실에서 첫모임을 갖는다.

權翊鉉 民正·柳漢烈 民韓·申喆均 국민당사무총장은 지난 4일의 3黨3役회담결정에 따라 8일 총장회담을 갖고 與野領袖회담의 참석범위및 議題가될 各黨의時局수습방안등에 관해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가질예정인데 이에 따라 與野 領袖회담은 11일께 靑瓦臺에서 全斗煥 대통령의 招致형식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하여 民韓黨은 領袖회담은 全대통령과 柳致松총재간의 단독회담을 주장하고 있는데반해 民正·국민당측에서는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 民韓黨의 柳총재, 국민당의 金鍾哲총재가 자리를 함께 해야한다고 맞서고있어 다소간의 논란이 예상되고있으나 政界에서는 全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의 3黨대표회담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領袖회담의 議題에관해 民正黨은 사전에 아무런 제한을두지않고 포괄적으로 수습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는데반해 民韓·국민당측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의 引責, 정치및 언론활성화문제, 경제難局타개책등을 주요안건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野黨의원뿐만 아니라 民正黨의원들도 지난주의 원 간담회에서 관계각료들의 추가인책을 주장하고있는 점을감안, 政界에서는 與野領袖회담이 끝난후 적당한시기에 全대통령의 時局 수습결단에따라 또한차례 改閣이 단행될것으로 보고있다.

"指導層은 더 奉仕할 責任"

全대통령 顯忠日에

全대통령은 6일『사회의 지도적 위치에있거나 남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겨레를 위해 봉사하고 나라에 충성해야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10시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27회顯忠日추념식 追念辭(劉彰順국무총리代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겨레가 잘돼야 나도 잘살수있다는것은 시대가 흘러도 변할수 없는진리』라고 강조하고 『나와 민족은 역사의 공동주체이며 나와 조국은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할때 우리는 결코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과업에 방관자가 될수없으며 또 국가시련을 自招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비서실장에 咸秉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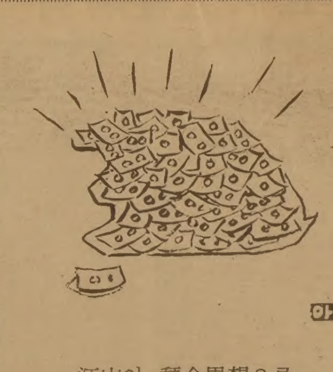
◇咸秉春비서실장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李範錫외무장관의 轉任으로 공석중인 대통령비서실장(長官級)에 咸秉春延世大교수를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7일상오 청와대에서 咸新任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이 자리에는 朴贊兢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咸秉春비서실장 略歷=▲서울출신·50세▲美노드웨스턴大·하버드大卒(법학박사)▲延世大 법정대교수▲대통령정치담당 특별보좌관▲駐美대사▲외무부본부대사▲대통령외교담당 특별보좌관▲南北調節委위원▲외교안보연구원연구위원▲延大법대교수

社會漫評



江山이 拜金思想으로…

차드國 쿠데타

【엔자메나 7日AP聯合=聯合】히세네·하브레가 이끄는 차드 반군 北軍(FAN)이 상오8시(한국시간 하오6시) 차드수도 엔자메나를 장악했다고 7일 발표했다.

FAN은 새벽5시에 엔자메나에 入城, 3시간도 못되어 수도를장악했는데 구쿠니·웨데예 대통령의 행방은 알려지지않았다.

유엔 特別軍縮총회

【유엔本部6日AP=聯合】동서양진영간의 군축을 촉진시키기위한 유엔특별군축총회가 7일(현지시간) 1백57개 유엔회원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時局수습 議員의견 民正, 黨총재에 보고

民正黨은 일요일인 6일상오 時局수습에따른 黨소속의원들의 포괄적인의견과 與野領袖회담추진상황등을 黨총재인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것으로 7일 알려졌다.

地平線

『한국에 살고싶지 않으십니까?』―한 텔레비전 쇼사회자가 외국가수에게 물어본 말이다. 질문을 받은 가수도 가수지만, 텔레비전을보는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잠깐 멈칫하는듯 싶던 가수에게서 재치있는 답변이 나왔다. 『1년중 절반은 한국에서 살고싶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엎드려 절받은 꼴인듯싶어 얼굴이 간지러웠다면 지나친 말일까? ▼텔리비전 토크 쇼의 사회자가 春園 李光洙의 따님에게 물어봤다. 『아버님의 얘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십니까?』―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뜻의 질문이다. 위대한 우리 신문학의 개척자를, 다시 말해서 외할아버지 얘기를 가르치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아이들의 모국이 인도라는 것을 깜빡 잊었다면 모르지만, 역시 뭔지 착각에서 온 질문이 아닐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란 뜻이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우물안 개구리』노릇을 하게 마련이란 뜻이다. 만18세이상의 남자 가운데 해외나들이를해본 남자는 고작 7·8%, 여자는 1·5%(갤럽조사연구소)밖에 안된다니까 아직은 『우물안 개구리』가 어쩔수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럽대륙을 가로 지르는 『오리엔트 특급』이 5년만에 다시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와 제트기에 밀려 지난77년5월 마지막 고동을 울렸던 오리엔트특급은 지금으로부터 99년전인 1883년 6월5일 파리에서 빈사이를 달리면서 시작됐었다. 열차는 같은해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달려 유럽과 오리엔트를 잇는 『기차중의 왕이요, 왕들의 기차』가 됐다. ▼처음엔 파리에서 이스탄불까지 간간이 철길이 끊겨 82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철길이 완전히 이어지면서 3천㎞를 56시간에 달리게 됐었다. 사람들은 알프스를 넘고, 오스트리아의 들을 지나, 유고의 숲과 불가리아의 농촌을 구경하면서 호화로운 휴게차에서 카드와 술을 즐겼다. 세상이 놀라져 아시아쪽 터키의 간이정류장에 내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도 했다. ▼오리엔트특급은 애거더·크리스티의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이나 제임즈·본드의 기가 찬 첩보활동의 본바닥이자 1차대전 종전협정이 맺어진 역사적인 기념물이기도하다. 아직은 런던―베니스, 파리―베니스밖에 되살아나지 못했지만 유럽문명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판문점도 못미처 주저앉고만 기차를 보면서 국제철도 여행은 커녕 지척에두고 온 평양길을 생각해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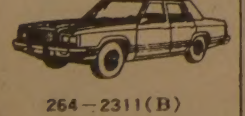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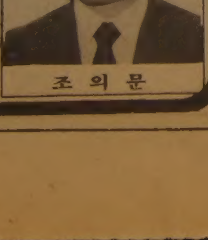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봉사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 캇트 및 스타일 $9
* 샴푸 및 스타일 $8
* 머리염색 $12 &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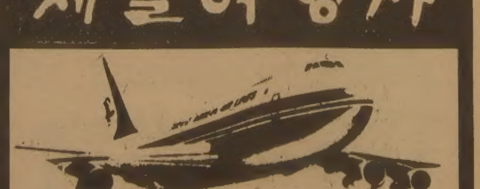
MAKE UP 부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화장
* 심는 속눈섭 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 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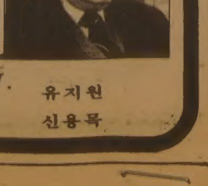
헤어스타일이스트 김영주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美, 高金利 인하 約束

西方7개國 頂上회담 閉幕

對蘇 借款제공에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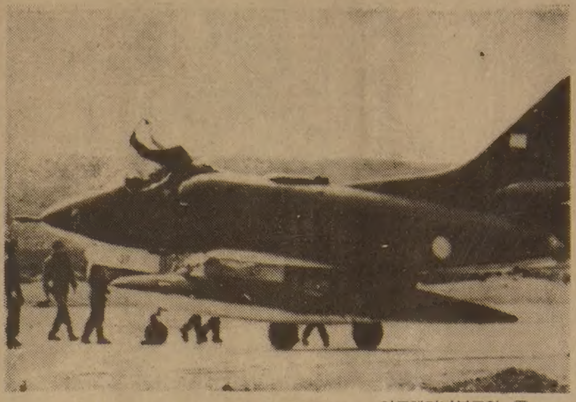
東西 무역監視등 합의

【베르사유6日AP·UPI=聯合】서방선진공업7개국 정상들은 6일▲對蘇차관제공에 신중을 기하고▲미국은 고금리를 인하하며▲통화안정계획을 마련하는한편▲세계경기침체타개를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貧國에대한 경제원조를 증대하기로 합의하고 2일간의 8차정상회담을 끝냈다.

서방선진7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을통해 對蘇및 對東구권에대한 재정및 상업차관제공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동·서간의 무역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감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7개국 정상들은 對蘇차관제공의 제한범위를 실제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서방7개국정상들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對蘇차관제공에 신중을 기하기로 합의한반면 미국으로부터 금리인하 약속을 받아냈다.



◇포島출격할 아르헨戰鬪機 아르헨티나본토의 공군요원들이 포클랜드군도로 파견할 스카이호크전투기를 정비하고있다。이 사진은 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군검열당국에의해 배포된것인데 사진촬영일자는 지난주중이라고만 돼있다。【코모도로리바다비아 (아르헨티나) 5日UPI電送=聯合】

美7함대 戰力強化

蘇측 태평양海軍力증강에 對備

【파타야(타이)6日UPI=聯合】미국은 소련의 대규모 인도양 태평양주둔 해군력증강에 대응하기위해 美7함대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7함대대변인이 밝혔다.

이대변인은 7함대의 기함 블루·리지호의 선상기자회견에서 미국정부가 미7함대의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英, 스탠리 總攻勢

增強된 5步兵旅團 합세

아르헨도 戰鬪機·야포동원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6日AP·AFP=聯合】포트스탠리외곽에서 아르헨티나군과 대치중인 영국군은 6일 퀸·엘리자베드2호편으로 동포클랜드군도에 상륙한 제5보병여단과 함께 포트스탠리에 대한 전면총공세를 개시하는 한편 아르헨티나군은 이에맞서 이날 새벽 전투기와 야포를 동원, 영국군거점지역에 맹포격을 감행했다.

영국의 ITN방송은 이날 영국군의 제5보병여단과 제3특공여단이 포트스탠리의 곽에서 「아주 대담한 작전」을 수행중이며 이번작전이 공항을 거쳐 경우 종전은 훨씬 빨라질것이라고 보도한으로써 영국군의 전면 총공세가 개시됐음을 밝혔다.

人工衛星 공격武器

5年內 배치를주장

美 와인버거國防

【뉴욕6日AP·聯合】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앞으로 5년이내에 美공군에 인공위성공격무기를 실전배치할것을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6일 보도했다.

나토 제4사령부

스페인, 創設촉구

【브뤼셀5日AP·聯合】스페인은 5일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회원국 참모총장들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의 직접지휘하에 4번째의 나토군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촉구했다.

메아리

헨더슨과 문화재

그레고리·헨더슨씨가 간직하고있는 우리 문화재수장품들은 잊혀질만한 시기가되면 한번씩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좀체로 사회적 관심의 테두리를 벗어날줄 모른다.

헨더슨씨와 우리와의 관계는 일찍기 독립흥분과 어수선함이 가시지않았던 1948년에 비롯된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를 마친 그는 약관26세의 주한대사관원으로 부임해 왔던 것이다.

50년 서독에 전임되었다가 58년에 문정관으로 다시 왔을때는 우리 문화재 수집문제로 자주 화제에 올랐다.

아르헨, 敗戰대비 政府개편 논의

次期統治者등 擧論

아르헨티나의 5개 정당지도자들은 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합을갖고 포클랜드전쟁에서 패배할경우에 대비하여 아르헨티나정부의 장래에 관한 토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정부개편안에 관해 토의했는데 개편안에는▲갈티에리 현 대통령이 84년까지 재임하되▲83년대통령선거에는 라미·도소공군사령관을 후보로 추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등 5國서

아르헨, 武器구입

【부에노스아이레스=UPI】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분쟁에서 상실한 각종 무기를 보충하기위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적어도 5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있다고 뉴욕·타임즈지가 미확인소식통을 인용 6일보도했다.

이라크機, 이란空襲

群衆집회장에 爆弾

이란관영 IRNA통신은 지난 1963년의 회교민중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군중집회에 폭탄을 투하, 1백50명이 부상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안테나

中共 趙紫陽수상

訪日마치고 歸國

【北京=UPI】중공수상 趙紫陽은 엿새동안의 일본방문을 마치고 보잉707특별기편으로 5일北京으로귀국했다.

에미리트聯·케냐

大使級 외교수립

아랍에미리트(UAE)와 케냐는 5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反核示威

伊서, 20여만參加

레이건美 대통령의 공식방문을 이틀앞두고 로마에서 20여만명이 참가한가운데 이탈리아공산당이 조직한 대규모 反核평화시위가 벌어졌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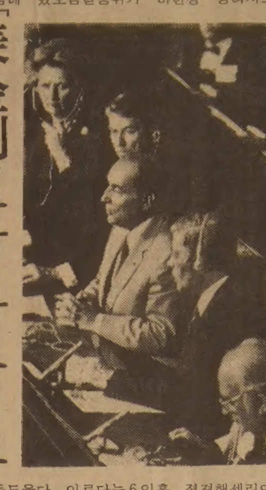
比이멜다 中共방문

고위관리들과 회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마르코스여사가 7일부터 4일간 중공을 방문, 趙紫陽수상을 비롯한 중공고위관리들과 회담할것이라고 필리핀 대통령대변인이 6일 발표했다.【마닐라=PNA】

입김거센 美國 「強者중의 強者」

—7國정상회담 폐막 聲明의 안팎



◇프랑스·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중앙)이 6일 西方선진 7개국 정상회담을 끝마치면서 베르사유궁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동안 스즈끼·젠꼬 日本수상(좌측 1번째),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좌측 2번째), 레이건美대통령(좌측 3번째),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우측 3번째), 피에르·트뤼도 캐나다 수상(우측 2번째), 지오바니·스파돌리니 이탈리아 수상(우측 1번째) 등 다른 6개국 정상들이 경청하고 있다.【베르사유6日AP電送=聯合】

「美金利인하」 카드내고

"對蘇교역신중"받아내

경기부양·인플레억제놓고 「安定」채택

베르사유 선진7개국 경제정상회담은 인플레치유의 역점을 두기로 합의한 가운데 6일간의 회담을 끝냈다.

【林鍾乾기자】

國際焦点

다시 불붙은「中東 火藥庫」

이스라엘、레바논侵攻의 속셈은…

◇이스라엘軍이 6일 레바논내 팔레스타인거점을 공격하기위해 전차를 앞세우고 국경을 넘어서고있다。【이스라엘의 레바논접경지대6日AP電送=聯合】

"PLO本部 섬멸"명분

駐英 이大使피격 보복

잠정휴전 와해…國際戰조짐

【朴永詰기자】

매력있는여성 OK

★나체잡지 당국에 例外

전화번호찾기42년

★2次大戰때 헤어진 형찾아

海外토픽

요트타고 世界一周

★英國人東西양쪽모두성공

뉴스위크 알몸表紙

★점포서 配布를 거부

【워싱턴=AP】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무인신문판매대
(NEWSPAPER BOX)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 앞, 외환은행및 실업인협회 건너편.

●40센트넣으면, 신문통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 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사 발송부

가와이 DIGITAL ORGAN은

Digital Excellence DX

250개 최초의 특허로 등록되었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되었읍니다.

히팅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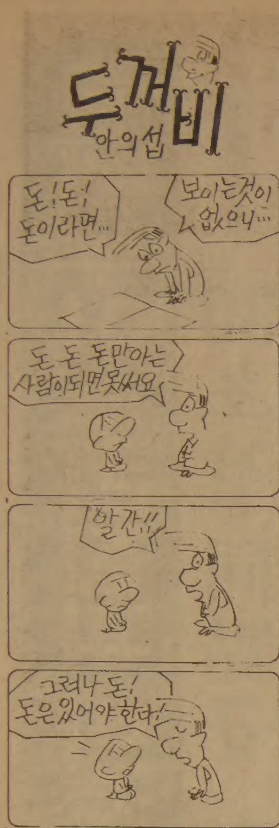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 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HOUSING CONSULTANTS LTD

1177 FINCH AVE. W. SUITE 21

☎ : 663-5155(B)
535-2804(R) 김 상 표



"빚갚고 事業자금위해 犯行"

숨진부인 外四寸동생등 拘束

3母女 살해事件

카메라등 證據品압수…손도끼·과도 수색

서울西大門區冷泉洞 3모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7일 숨진 李君子씨(40)의 외사촌동생 金永泰(23·전과2범·충북清州市社稷洞35의6)와 金의 친구 丁錫範(28·전과2범·충북清州市朱坪洞148)등 2명을 진범으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李씨집에서 털어갔던 일제 캐논카메라2대와 여자용손목시계 1개, 丁이 당시입었던 피묻은 T셔츠, 청바지, 수건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했던 등산용손도끼와 과도등을 찾고있다.

주범金은 경찰에서『건어물 행상등을 하다가 실패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빚진돈을 갚기위해 고종사촌누나인 李씨에게 돈을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죽여서라도 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한편 범인 丁은 2개월전 교도소에서 나와 직업도 없이 놀고있던중『한탕해서 한밑천잡자』는 金의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10면

검거…… 사건발생직후부터 면식범의 소행으로 단정, 수사를 펴온 경찰은 숨진 李씨의 장녀 恩愛양(14)이 평소친구인 金모양(14)에게『永泰삼촌이 자주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괴롭힌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데이어 지난4일 의식을회복한 李씨의 장남洪垂군(9)으로부터『永泰삼촌과 친구가 사건당일밤 집에왔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듣고 이들을 범인으로 단정, 충북清州로 형사대를 급파했다.

경찰은 金의친구인 丁이사건당일인 지난2일 金과 함께 서울로 갔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丁을 공범으로보고 뒤쫓은끝에 5일 하오4시께 清州市永雲洞 충북자동차운전교습소에서 丁을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은한편 丁의 애인 金모양(27·清州市内德洞)집에서 숨진 李씨의 엘진 손목시계1개를 찾아냈다.

丁은 이시계를 金양에게 범행후 선물로 줬었다.

경찰은 또 이날하오 충북清原郡江外面東坪里 金의외삼촌(35)집에서 金이 맡긴 캐논 카메라1대를 발견, 金을 계속 추적해오다 6일낮12시30분께 경기道高陽郡 재육군모부대로 친구 朴모병장(27)을 찾아가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자살하기위해 극약을 구하려던것을 朴병장의 신고를 받은 군수사기관 요원들이체포, 경찰에 넘겼다.

범행…… 주범 金은 지난해 진빚 1천여만원을 갚기위해 고종사촌누나인 李씨집을 털기로 결심,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감한 丁에게 접근,『한밑천 잡아 잘살아보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金이 清州시내 모 시트커버사에서 10만원을 주고 빌린 충북1가2833호 포니승용차를 타고 상경, 28일상오 서울南大門시장에서 범행에 쓸 등산용손도끼·과도·면장갑2켤레·노끈5개등을 구입, 여행용가방에 넣고 그길로 하오7시30분께 李씨집을 찾아갔다.

당시 李씨집에는 李씨의 친정어머니(61)가 와 있었고 문밖으로 자주 드나드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 29일 清州로 내려갔었다. 金은 범행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지난5월 아버지가 사준1톤포터트럭을 30만원에 처분한뒤 지난2일 하오7시께 丁과함께 포니승용차를 몰고 다시서울로 올라와 하오9시20분께 승용차는 西小門고가도로 아래 빈터에 세워둔채 李씨집으로 갔다.

李씨집에 먼저들어간 金등은 응접실에서 李씨, 3남매와 함께 TV를 보았는데 李씨가『친척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래서 귀찮다』며『너도 돈얻으러 왔느냐』고 金에게 핀잔을주자 밤10시40분께 소파에 앉아 조는듯 눈을감고 있는 李씨를 가방에서 꺼낸 손도끼로 공격했다.

李씨가 비명을 지르며 2층계단쪽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계속 공격한뒤 숨진 李씨를 피아노방으로 옮겨놓은 뒤 공부방으로가 2녀 秀娟양(2) 洪垂군(9) 과恩愛양(14)도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해쳤다.

이들은 안방장롱과 문갑을 모두 뒤졌으나 현금을 찾지못해 카메라2대와 李씨의 손목시계1개·양담배9갑·남편李鍾善씨의 등산용캡등을 흰보자기에 싼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3일새벽 0시10분께 빠져나왔다.

도주…… 李씨집 골목을 뛰어내려온 이들은 西大門區忠正路화양극장앞 고가도로 아래에 세워 두었던 승용차를 타고 3일 상오 3시30분께 清州에 도착, 해장국을 먹은뒤 社稷洞 金의 집으로가 金의 부모에게 범행을 털어놓은뒤 무심천 둑으로 가 과도

◇殺人 獸心 친척일가족3명을 무참히 살해한 주범 金永泰ⓒ와 공범 丁錫範ⓐ주범 金은 형사들이 수차묻는데도 여유있는 표정으로 고함까지 질렀다.

下半期영세민 就勞사업

勞賃대신 양곡 支給

【서울】보사부는 7일 영세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금년하반기에도 3백80억원 규모의 영세민취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노임2백85억원은 정부보유양곡으로 지급키로 했다.

양곡으로 지급되는 노임은 하루에 남자는 7kg、여자는 6kg이며 취로사업의 실시시기는 도시는 6월중、농촌은 모내기가끝나는 7월부터다.

양곡으로 지급하는 노임은 정부미방출가격보다 20%정도 싼값으로 책정돼 현금으로 환산하면 남자는 현재 하루3천5백원에서 4천2백원、여자는 3천원에서 3천6백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제주 天地淵·正房 폭포

썩은물이 떨어진다

생활汚水·廢油로 악취까지

絶景먹칠 觀光客들도 눈쌀

西歸浦에 下水종말處理場 세워야

【濟州이동독자부=金首宗기자】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절경이라는 濟州의 正房폭포와 天地淵폭포에서「썩은물」이 떨어진다. 폭포주변에 다가서면 악취가나 관광객의 기분을 잡치게하고 관광명소의 체통에 먹칠을 가하는 꼴불견인데 폭포물이 흘러들어가는 西歸浦앞바다의 맑은물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예삿일이 아니다.

두폭포는 같은 관광코스에 있고 2㎞정도 떨어져있는데다 正房폭포의경우 육지의물이 직접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로서는 동양에서 하나뿐인 절경이어서 신혼여행부부는 물론 일본인등 국내외관광객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몰려드는 관광명소다. 濟州여행에서 빼놓을수 없는 이들두폭포가 이처럼 크게 오염되고있는것은 두폭포로 흐르는 正房川과 솟칭 선반내(하천이름)가 西歸浦시내의 세차장등 각종업소의 폐유등찌꺼기와생활오수에오염된채 그대로 폭포로 흘러 떨어지기 때문이다.

西歸浦시는 이같은 오염폐수의 양을 하루1만2천4백80㎘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추산이다.

특히 높이23m인 正房폭포에서 5백여m만 거슬러올라가도 주위의 세차장에서 방류된 폐유덩어리와 비닐, 생활오물등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또 1천여m상류인 시민회관근처에는 하천의 양쪽에 수십채의 주택들이 밀집돼있고 대부분의 주택들이 화장실을 냇가에지어 오물이그대로하천으로 떨어지게만들어놓았다.

이때문에10여년전만해도깊이 4·5m안팎의 물바다에서는 모래알까지 헤아릴만큼 맑았던 天地淵폭포는 이제1m바닥도 제대로 안보일정도로 뿌옇다.

두 폭포로 떨어지는 썩은물은 결국 西歸浦앞바다를오염시키고 있어 이래저래 경치좋은 西歸浦해안이 파괴되고있는데 특히 西歸浦市는 작년7월 市로승격된후 상주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天地淵의 무태장어를 비롯한 하류의 은어서식도 불가능할 것으로 현지주민들은 우려하고있다.

두 폭포의 오염을 막으려면 인구 5만이 넘는 西歸浦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해야하는데 西歸浦 시에서는 예산이 1백30억원이나소요된다는 계산만해놓았을뿐 구체적계획을 세우지못하고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시급하다.

국내관광전문가들도『中文관광단지등 정부차원의 濟州종합관광개발을 진행하는 판에 濟州관광의 핵이랄수있는 이 두폭포가 오염된채 방치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천연관광자원의 보호에도 투자가필요하다』고 말하고 1년예산 50여억원밖에 안되는 西歸浦市의 일반회계에 의존하려다가는 복이킬수 없을정도로 자연이 파괴돼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바다의 모래알도 보이던곳이…… 보기에는 절경이지만 생활오수가 떨어지고있는 濟州의 正房폭포。국제적인 명소라는 명성과함께 세계적인 오염폭포로 기록될까봐 두렵다。【朴泰弘기자찍음】

毒感앓는 어린이 아스피린은 "危險"

FDA、라이·신드롬警告

미국보건성은 아스피린이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병의하나인 라이·신드롬의 원인이된다는 단서를잡고 아스피린 상표에「위험」경고표지를 부착케할 예정이다。

리처드·슈웨이커 美보건성장관은 어린이가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는경우 어린이의 라이·신드롬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접수한후 이의 타당성을 인정, 곧 FDA로 하여금 아스피린에 경고문을 붙이도록 명령했다고말했다。

라이·신드롬(Reye's Syndrome)은 1961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독감、水痘등을 앓은 어린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현상이다。의학적으로는 뇌에 큰손상이 오든가、아니면 肝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인데 이병의 치사율은 지금은 30%정도이지만 한때 90%이상이어서 가장 무서운 어린이 병으로 알려져있다。【워싱턴=UPI聯合】

대학생 農漁村 봉사활동

實習과목 學點인정 檢討

문교부는 7일 올해 여름방학부터 실시케될 대학생들의 농어촌봉사활동결과를 실습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대학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현장교육을개발, 각대학의 봉사활동을 학생처주관으로 처리하지말고 각단과대학과 협의해 실업계의 경우 실습과목으로 인정,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교도할것을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개별적인 일반근로봉사는 허가하지 않고 근로청소년학교 학생들만 협의해 허가키로했다.

신고된銃器등 숨긴

前職경관 令狀

서울九老경찰서는 7일 주민이 신고한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몰래 보관해온 전직경찰관 金鍾哲씨(59·경기安城郡安城邑金山洞142)를 총포및 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48년 경기安城경찰서 峨洋지서에 근무할때 주민이 인근야산에서 주워 신고한 카빈소총1정、실탄1백42발、탄창8개와 4·5구경 권총의 실탄40발、탄창7개및 다이너마이트2개、도화선 3백25cm등을 자기집안방 벽장속에 감추어오다 주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百년묵은 山蔘 세뿌리캐내

太白市서 農夫등 3명 橫財

【太白】강원太白市鐵店洞7통3반 金雲京씨(36·농업)와 같은 마을의 金學伊씨(26·무직)沈成達씨(51·무직)등 3명이 지난2일상오 인근 삼방산에서 길이20cm、직경1cm가량의 1백년생 산삼 3뿌리를 캐냈다.

이산삼은 金雲京씨가 지난1일 밤 꿈속에서 흰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업(業)을 받으라』고 말해 밥상을갖다놓자 큰거북이 한마리가 밥상위에 올라앉아 이상히 생각하고 이웃 金學伊씨·沈씨등 2명과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산삼을 발견한것.

7년전에는 이마을 金봉녀노파(66)도 삼방산에서 같은 크기의 산삼 1뿌리를 캤었다.

꽃사슴 40마리 輸入

1~2년 試驗사육

【聯合】농수산부는 75년이후 처음으로 외국으로부터 꽃사슴40마리를 수입、1~2년간 시험사육후 본격 수입여부를 검토키로했다.

농수산부가 축협을통해 도입키로한 꽃사슴40마리는 대도시주변 2개소와 산간지구 2개소씩 4개소를 선정、새마을지도자·독농가·우수새마을을 대상으로 사슴수입자금의 80%를 융자지원해 10마리씩을 분양키로 했다.

「큰손」裁判

李·張사건主審 李玲愛여판사

首席인생의 또하나의「수석」期待

「李·張사건」의 주심을 맡은 여판사 李玲愛씨(34·사진)。건국이래 최대의「바람을일으킨 張여인」의 죄과를 판단할 주역 역시「女子」라는데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낀다。남자보다「명석」한 두뇌를가진 인물과「큰손」을 가진 인물과의 만남…

얼핏보면 좋은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공통점인 티없이 밝고 사교적일것같은 인상을 풍긴다。그러나 막상 얘기를 나누려니 차분하고 쉽게 입을 열려하지 않는다。

법관으로서의「권위의식」같은것이 조금쯤 배었나 싶다。면해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자『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는법』이라고 잘라 말했고, 여판사로서의 법관생활에 대해서도『모든여성들이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판사라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겠느냐』며 입을 다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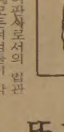
같은 재판부(서울 형사지법 합의11부)의 재판장인 許正勳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선배판사들은 그녀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소송사건기록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판결문 작성도 논리적으로 야무지게 만든다』면서 이번사건에서도 방대한 사건기록들을 여성특유의 섬세하고 꼼꼼한 자세로 분석해내는「수완」을 부릴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사법부에서 수많은 선배 동료판사들틈에서 그녀는 조금도 지지않고 중견판사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현재 서울형사지법의 3명、민사지법1명、가정법원1명등 5명의 여판사중 제일선배。

71년3월 서울법대를 수석졸업하고 같은해 13회사법시험에서 사법고시사상 최초로 수석합격을 한 수재。판사임명후 지난76년 하버드대학에 1년간 유학、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판사경력은 민사지법에서 출발 형사지법으로 옮긴지는 1년이 됐다。서울법대수석졸업때는 남학생들이 분발위원회를 만들어 [illegible] 여자라니 체면상 말도 안된다」고 교수님의 [illegible] 점수가 작용했다」며 수석졸업의 영광을 권하고 교수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일화를남긴 대단한 여자이기도하다。법학자이며 법무차관、교통부차관、보사부장관을 지낸 李炳鎬씨(변호사)의 4남3녀중 2녀인 李판사는 京畿여고도 수석이었으니「수석인생」인 셈이다。

피고인만도 32명、당대의 거물급 변호사들이 열을뿜고 베테랑검사들이 지켜보는 이번 세기의 재판에서 그녀는 또 한번 그 역사적 재판에서「首席」을 할수 있을 것인가。【林承茂기자】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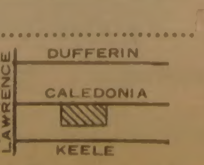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May 31 - June 12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85
Y & S Twizzlers	70x.5	1.75
Cadbury Thick Bars	36x55	13.75
Cadbury Family Bars	24x99	15.05
Garbage Candy	24x25	3.79
Gobstoppers	24x25	3.79
Hubbabubba Gum	24x30	4.15
Tic Tac Display	90x35	19.99
Lifesavers Candy	24x30	4.35
Wilson's Pop All Flavours	24x10 oz. cans	5.59
Carefree Gum	18x35	3.65
Breathsavers	18x35	3.65
Baseball Combo Pack　Album & Stickers		15.75
Baseball Stickers	100x20	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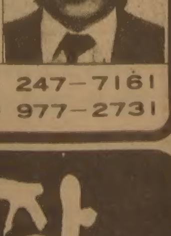
Cash & Carry 에 한함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블란서.
이태리 챗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할렐루야、브라질과 비겼다

대통령盃 축구 30초전 同點골「奇蹟」

3-3

吳錫載 백헤딩、劇的으로 득점

말聯도 西獨에 逆轉勝…「異變」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이틀째 경기가 6일 서울운동장서 속행, 한국의 프로팀 할렐루야는 브라질의 오페라리오와 맞서 전반 3-0으로 리드당하다가 후반에 접어들어 吳錫載가 2골, 李永吉이 1골을 뽑아 극적으로 3-3무승부를 기록, 예선B조 첫경기를 무승부로 이끌었다。

이날 말레이지아 대표팀도 西獨프로 레버쿠센과 대결, 전반 선제골을 빼앗겨 고전하다가 후반들어 조하리·마이나가 2골을 넣어 2-1로 역전승, 예상을 뒤엎었다。

3점차의 열세를 후반에서 뒤집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전반이 끝났을때 관중들은 오페라리오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할렐루야 선수들은 끈기차게 따라붙어 후반전서 연속 3골을 기록, 기적의 무승부를 연출했다。

전반 리바(3분) 카를로스(22분) 몬타이스(31분)의 득점으로 3-0의 리드를 잡은 오페라리오는 승리를 과신, 후반서 공격템포를 늦추었다。이것이 화근이었다。

할렐루야는 후반23분 장신 FW 吳錫載가 李永吉의 도움으로 1골을 만회하고 39분 吳錫載의 중거리슛을 오페라리아 GK가 쳐내자 李永吉이 리바운드볼을 잡아 다시슛, 3-2로 추격했다。

할렐루야는 경기종료 30초전 黃在萬의 롱드로잉을 吳錫載가 백·헤딩으로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다。

◇제2일전적

▲B조

할렐루야 3 (0-3 / 3-0) 3 오페라리오
(1무) (1무)

말聯 2 (1승) 1 레버쿠젠 (1패)

◇솟아오른 吳錫載 할렐루야―브라질 오페라리오의대결。브라질 문전에서 장신 FW 吳錫載가 상대수비 2명사이에서 솟아올라 헤딩하고 있다。할렐루야는 경기종료 30초전 吳의 헤딩·슛으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南仁奎 7위 濠 12km 크로스

南仁奎(眞露)는 6일 濠洲의 캔버라에서 열린 육상 12km 크로스·컨트리에서 32분59초로 7위를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南은 지난달 30일 열린 25km단축 마라톤서 1시간19분42초로 4위를 마크했다。

한국、星港대파 존즈컵 여자농구

【臺北5日AP=聯】한국여자대표팀(眞德)은 5일 臺北에서 개막된 제6회 존즈컵 쟁탈 국제여자농구대회 B조 첫경기에서 싱가포르를 1백20-39로 물리치고 1승을 기록했다。

이 대회에는 13개국 14개팀이 출전、4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벌인다。

이날 경기에서 孔賢子는 31점으로 최고득점을 기록했고 崔愛英과 車仙鎔이 각각 20점을 올렸다。

◇전적

▲B조

한국 120-39 싱가포르
(1승) (1패)

▲C조

臺灣A 88-45 프랑스
(1승) (1패)

OB、해태4대1 制壓…우승에 6勝남겨

三美…「슈퍼能力」회복

最下位안간힘 15安打로 MBC 울려

프로야구

앞으로 1승。三美 슈퍼스타즈의 목표다。연전연패의 三美에 실망한 팬들은 전기리그 10승조차 어려운 과제라고 동정했다。기량갖춘 선수의 부족、특히 투수진의 빈곤은 80년대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선 仁川고교야구를 재현하는듯했다。

그러나 6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강적 MBC 靑龍과 맞선 三美는 놀라운 슈퍼파워를 발휘、초반에 15개의 안타를 터뜨려 11-10으로 승리했다。MBC로부터 거둔 2연승으로 三美는 9승 21패를 기록했다。

金擧男은 1회말 2루타、5회말 2점 홈런을 날리며 三美의 대량득점에 기여했고、印浩鳳·金在峴은 막판 MBC의 반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MBC、三星등 강적들과의 10게임을 남기고있으나 三美의 1승추가는 어려운 숙제가 아닌것 같다。

OB 베어스는 光州에서 해태 타이거즈에 4-1로 이겨 8연승、23승7패로 우승에 6승을 남기고있다。

三星 라이언즈는 張泰洙의 결승 홈런으로 롯데 자이언트에 3-2로 승리、21승12패를 기록했다。

◇전기 중간순위 <6일현재>

	승	패	승률
①OB	23	7	.767
②삼성	21	12	.636
③MBC	15	16	.484
④해태	14	16	.467
⑤롯데	10	20	.333
⑥삼미	9	21	.300

◇6일 전적

▲대구

MBC	010	000	242	10
삼미	520	220	00×	11

▲홈런=金容允(8회·3점·MBC) 金擧男(5회·2점·삼미)

▲부산

삼성	200	010	000	3
롯데	100	001	000	2

▲홈런=張泰洙(5회·삼성)

▲광주

OB	000	000	103	4
해태	000	010	000	1

▲홈런=金奉淵(5회·해태)

한국、佛꺾고 優勝

佛국제女子농구 朴鎭淑16·朴賛淑15점

【오를레앙(프랑스)5日AP=聯】한국여자대표농구팀(會德)은 프랑스의 6일끝난 제1회 프랑스초청국제여자농구대회 결승전서 프랑스를 63-49로 대파、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날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쳐 전반전을 30-25로 리드한뒤 후반에서도 맹공、제1회대회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쿠바는 3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朴賛淑이 15점、朴鎭淑이 16점、金和順이 12점을 얻는 활약을 보였다。

◇결승전

한국 63 (33 30 / 24 25) 49 프랑스

西獨 베르더브레멘 日本대표에 2대1

저팬컵蹴球

【東京支社】西獨의 베르더 브레멘팀은 이곳서 벌어진 저팬컵국제축구대회서 日本대표팀을 2-1로 물리쳐 3연승을 기록했다。

네덜란드의 페예노르드팀은 싱가포르를 5-1로 물리쳤다。

朴利熙 준우승

매스터즈卓球 日오노에 完敗

【터틀루트7日AP=聯】한국의 朴利熙는 6일 이곳에서 세계랭킹16위인 日本의 오노·세이지에게 3-0(21-17、21-19、21-17)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朴利熙는 상금으로 4천5백달러를、우승자인 오노는 9천달러를 각각 받았다。

한편 3·4위전에서는 유럽챔피언인 스웨덴의 미카엘·아펜그렌이 美國의 에릭·보건에게 2-1(16-21、21-14、24-22)로 역전승、3위를 차지했다。

◇결승전

오노 3 (21 21 21 / 17 19 17) 0 朴利熙

17歲 윌란더優勝

佛오픈 테니스

【파리6日AFP=聯】스웨덴의 신예 매츠·윌란더(17)는 6일 프랑스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단식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의 기예르모·빌라스(29)를 3-1(1-6、7-6、6-0、6-4)로 꺾고 첫패권을 차지했다。

윌란더는 이날 섭씨37도의 무더위속에 진행된 4시간47분간의 결승전에서 첫세트를 1-6으로 빼앗겼으나 정확한 좌우스트로크로 3번시드의 빌라스를 제압、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오는 8월22일 18세가 되는 윌란더는 프랑스오픈사상 가장 나이어린 우승자가 되었는데 같은 스웨덴출신의 비외른·보리가 지난1974년 프랑스오픈에서 첫승리를 거둘때 나이는 18세였다。

여자단식결승에서는 체코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25)가 美國의 안드레아·예거(17)를 2-0(7-6、6-1)로 제압、처음으로 프랑스오픈선수권을 차지했다。

1千m 嚴英燮우승

사이클 파견선발

사이클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발전최종평가전이 7일 여의도 체육공원서 열려 1천m독주경기에서 嚴英燮(한체대)이 1분14초09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적 (종목별우승자)

▲11.2km 도로=兪炳憲(보문고)15분24초90▲1천m독주=嚴英燮(한체대)1분14초09▲3천m독주=安優爀(한체대)=4분03초22▲24,000m포인트=趙建行(덕산고)30점

주간女性 533-2361

銀行 신용카드 어제부터 發行

5개시중은행의 전국점포에서 공동으로 취급하는 크레디트카드인 은행신용카드가 7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과 한국상업은행、제일은행、한일은행、서울신탁은행이 공동관리하는 이카드는 전국 6백여개 5개市銀점포에서 신청받아 발급하며 5개市銀의 모든 가맹점에서 통용된다。

이 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 市銀점포에서 월10만원 이내의 현금서비스를 받을수있으며、보험에도 자동가입돼 분실 도난에 따른 손해를 1백만원까지 보상받게된다。

電子計算機산업 전문生産體制로

상공부는 전자계산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키로하고 이를위해 소형 전자계산기등 7개품목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등 6개부품을 중점 육성업종으로 선정、전문생산체제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流星의 賦 <40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①

경기 조방장 홍계남은 연일의 전투에 시달려 광교산의 본거로 돌아와 서산의 낙일을 보고 있었다。이때 5~6기(騎)의 말이 남쪽으로부터 달려왔다。

『적인가、우리 편인가』

하고 있는데 전초에서 보고가 왔다。

『권율장군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는 것이었다。

계남이 그 친서를 펴들었다。

『…이제 평양、봉산、평산、우봉、백천、개성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서로(西路)가 끊기고 말았소。이렇게 평양 이남의 땅이 모조리 적의 소굴이 되어 버렸소。이대로 방치하면 조정과 우리들 사이는 연결이 될 수 없게 될 것이오。그런즉 우리는 기어이 한성을 탈환해야 하겠소。한성을 탈환함으로써 적의 기세를 꺾고 서로를 다시 열게 되고 이윽고 북상하여 근왕할 수 있을 것이오。그러 하온즉 홍공께서도 만에 하나의 유루가 없도록 바라오。나 권율은 근일 정병 1만명을 거느리고 수원방면으로 진출할 것이오。그때 만나 작전계획을 세웁시다。그 계획에 대비해서 홍공께선 그곳의 상황을 잘 살펴두시오』

계남은 그 편지를 읽고 일시에 피로가 가셔짐을 느꼈다。한성의 탈환은 계남의 숙원이었던 것이다。

한성은 그때 여전히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의 장악하에 있었다。한성과 그 주변에 주둔한 적병의 수는 약 6만。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적은 인근의 민가를 함부로 약탈하는 행패를 부리게 되었으므로 우선 그것을 방지하느라고 홍계남이 영일(寧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장군에게 무슨 묘책이 있는 것일까)

적의 수는 고스란히 6만이나 되는 것이다。계남은 즉시 막하의 간부들을 불러모아 권장군의 친서를 보이며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수일 후 독산산성(禿山山城)으로 진주한 권율로부터 계남에게 전갈이 왔다。계남이 즉시 달려갔다。그 자리에서 권율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여름 5만의 우리군사가 용인에서 패하지 않았소。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나는 무법한 진격을 삼가고 이 독산산성을 지키며、금방이라도 한성을 칠듯이 양동(陽動)하여 적을 유인하여 쳐서 그 세를 꺾을 작정이오。공의 협력을 빌겠소』

계남은 광교산을 거점으로 하여 임기응변의 작전을 펴겠다고 하고 돌아왔다。

권율의 예상은 적중했다。

권율군이 독산산성에 집결해 있음으로 해서 적의 연락이 끊길 염려가 있을뿐만 아니라、한성이 직접 위협을 받게 된다고 적장 우희다는 수만의 군사를 출동하여 독산성을 공략하려고 했다。

우희다는 우선 삼진을 만들어 독산을 포위하여 권율군이 성 밖으로 나오도록 도발했다。그러나 권율은 군의 틀을 타서 수십 수백기식 일시에 내 보내 적을 기습하곤 곧 돌아오는 전법으로 적을 괴롭혔다。한편 홍계남은 야음을 이용하여 적의 배면을 쳐서 적을 혼란케하는 한편 백기(百騎) 내외의 군사로 하여금 독산산성의 문을 드나들게 하고 빛깔이 다른 기치로 바꾸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는등、독산산성에 계속 증원군이 도착하는양 꾸며 적의 사기를 저상케 하는 반면 권율군의 사기를 도왔다。

한국일보 詩壇

신록의 갈채

신찬식

파도처럼 출렁이는
신록의 짙은 의미를 새삼 깨닫아
싱그러운 바람을 귀 기울여 듣노니
무성한 잎새、
잎새들이 일제히 부딪쳐 들려주는
환희 넘치는 빛의 소리
오! 현란하게 솟아지는
축복의 갈채 소리、소리들…
햇무리 화관 쓰고
장미 꽃길을 사뿐히 거닐어 오시는
그대、유월의 신부여!
일곱빛 고운 햇살 자락을 걸치고
새 아침의 풀섶을 헤치며 오시는
그대、해님나라의 낭군이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⑩

그놈의 은표주박만 늘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수지는 마치 동생이 이십년전에 모든것을 잃은 것도 두시간전에 사람을 잃은것처럼 다 은표주박 때문인것처럼 뼈 똑 이렇게 되게 까렸다。불과 두시간전의 일이건만 그때의 불같은 질투는 되살아나지 않았다。오랜 시간에 걸쳐 걸러진 사건처럼 담담했다。

『수인 살았을까?』

수지가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히 말했지만 그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너도 그애 생각이 나나 보구나?』

『그럼 오빠도?』

『그애도 시집 갈 나이가 됐으련만』

『살기나 했을까요?』

『글쎄다。널 시집 보내려니 그애를 찾아 돌보지 못한 게 더욱 걸리는구나』

『오빠 최선을 다 했어요。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예요』

『그래도 먼 촌남이라도 좋으니 그걸 알아줬으면 좋으련만…』

『오빠!』

『잘 살아야 한다。그의 몫까지』

위선의 교감은 감미롭고 짜릿했다。울다 눈시울을 적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 밤중에 누구지?』

『누군 누구겠니? 남궁이지。잘 해봐라。데드라인이 얼마 안남았어』

거실의 괘종시계가 지치고 녹슨소리로 한번 울렸다。열한시 반이었다。

『기욱씨? 나야』

그리고나선 수지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다。수철이 무심한척 그러나 세심하게 수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얘기가 잘돼가는지 수화기를 들고 비스듬히 앉아 발장난을 치는 수지의 표정은 시종 밝았고 가끔 소리내어 깔깔대기도 했다。

『아주、기욱씨 제법 박력 있는데。그거 혹시 울오빠가 가르쳐준거 아네요? 놀랄거 없어요。울오빠가 뭐 기욱씨한테만 좋은거 가르쳐줬나요? 나한테도 박력을 가르쳐 줬나요? 설마。우리들이 박살나는 꼴을 보고싶어할 울오빠 아니라구요。나텐 절도있는 애교를 가르쳐주대요。울오빠 음흉하죠?』

그리곤 주로 네、네、알았어요。다신 안그럴게요등。짧고 수동적인 말만했고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뱅글뱅글 됐다。거의 반시간동안이나 계속된 장장한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수지가 말했다。

『오빠、결혼 얘기 끝냈어요』

『아이 오빠두 놀라시긴。내일 약혼반지 사러가기로 합의 봤단 소리예요』

『짜아식 급하긴』

『오빠가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그랬던가? 아뭏든 잘했다。좋은 일일수록 서두르는게 수야。참 그 치는 말썽없겠지?』

『그치라뇨?』

『왜 있잖아。인재가 하는 추근추근한 치 말이다。난 그치생각만하면 꺼림칙하더라。옥희의 터나 안챘으면 좋으련만…。설마 그럴진 않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철이 살피듯이 물었다。

『아、아니다。됐다。올라가 자려무나』

그때 괘종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사람 키만한 괘종시계는 매우 느리게 울렸다。수지는 제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몸을 던질때까지도 그 녹슨 소리는 계속됐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1>

朴婉緖 作 金光培 作

응달 ⑪

한꺼번에 많은 일이 생겼고 또 중대한 일을 결정한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심신이 상쾌했다。뜻하지 않은 돌파구가 생겨 얽키고 설킨 갈등으로부터 쉽게 벗어난 느낌이었다。

기욱이 안나타났으면 모를까、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나이와 더불어 원숙해진대로 원숙해진 자존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킬 만한 기욱이 나타난 이상 인재와 헤어질수밖에 없으리라는걸 그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의리없음에대해 그 정도는 뻔히 들여다보고있으면서도 여지껏 인재와 헤어지지못한건 미련때문이 아니라 이기심때문이었다。헤어지되 조금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꺼림칙하지 않게 헤어지려니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그런데 뜻밖에 옥희가 나타난것이다。동생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던 옥희가 동생이란 확실하게 움직일수없는 징표를 목에 걸고 인재의 애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생을 위해 인재를 양보했다고 생각하면 신파조의 감미로운 애상이 싸구려 향수처럼 마구 피어올랐다。

옥희에 의해 그들의 헤어짐엔 아무런 하자도 없게 됐다。떳떳하고도 완벽했다。

결국은 마음변하기 편리하도록 옥희를 이용한데 지나지 않았다는데 대해선 별로 마음 쓰지 않았다。

그녀와 헤어졌다고해서 과연 인재가 옥희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싫었다。그것은 그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었다。중요한 건 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을 위해서 자기의 오랜 사랑을 끝장낼수 있었다는 자기도취뿐이었다。

인재와 옥희가 결합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건 어쩌면 그걸 원치않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은 그녀를 혼란시켰다。일단 정리된 갈등이 다시 뒤죽박죽으로 얽힐 것 같았다。

그보다도 인재한테 버림받은 옥희를 상상하는쪽이 훨씬 더 감동스러웠다。오옥이가 인재한테 버림받았다고 가정할때만이 오옥이한테 진한 핏줄의 정이 솟아올랐다。

뼈가 아프게 오옥이가 불쌍하고 인재가 미웠다。자신을 배신한 인재는 얼마든지 용서할수가 있었지만 오옥이를 배신한 인재는 상상만으로도 격렬한 욕설이 북받치고 치가 떨렸다。그 상반된 느낌은 본능의 표리(表裏)처럼 원색적이면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랬니? 응 왜 그랬어? 수지는 그방에 자기 혼자뿐인걸 알면서도 남의 이목을 꺼리듯이 조용히 소근거렸다。가슴이 울렁거렸다。

일은 물론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와 갈등에 대해서까지 설명과 정리를 끝냈건만 아직도 남아있는 의문이 있었다。

오옥이가 동생인지 아닌지 더이상 긴가민가할 필요가없을만큼 명확한 징표를 걸고나타났는데도 왜 즉시 아는척을 하고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그랬을까? 도대체 언제까지 모르는척할 작정인가?

그녀는 서가(書架)한구석에서 예전에 즐겨읽던 탐정 소설을 꺼내 아무데나 펴들었다。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주인공이 다시 그살인의 목격자를 죽이고 또 다시 두번째 살인의 증거를 인멸하기위해 사람을 죽이고 또 범죄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식으로 완전범죄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는 얘기였다。

살인이 거듭될수록 수법은 세련되고 죄의식은 희박해지고 생활은 우아하고 도덕적이게 돼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오옥이를 처음 버린 일을 은폐하기위해 앞으로 수없이 오옥이를 모른다할수 있을것같았다。

東山高、清州따돌려

中高야구 選手權

釜山高의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金宗奭이 두번째 나섰다。지난해 4관왕 慶北高를 제치고 시즌 첫대회인 대통령배를 석권한 釜山高는 7일 전국중고야구 선수권대회3일째 고등부1회전에서 에이스 金宗奭의 위력적인 투구로 두차례의 위기를 막아내고 心石綜高를 3-0으로 제압、시즌 두번째 타이틀도전의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고	101	110	001	5
동산고	400	010	01×	6

▲홈런=金鎭圭(5회·청주)

◇제2일 1회전

광주진흥	000	100	000	1
마산고	001	030	00×	4

경남상	003	000	0	3
인천고	000	100	9	10

<7회콜드게임>

김명종 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무료핸드북、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헌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노스 · 욕.시보레
○.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직원모집(6명), Steeles & Warden Area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실수 있는 여자분으로 가벼운 공장일(Neither dirty nor heavy)을 하실분, 처음 Starting Pay는 시간당 $4.50이며 특히 아래주소근처에 사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직접 475－8748(Mr. Magi)로 연락하시거나 한국일보 Miss 박을 찾아 문의하십시요.
100A Gibson Dr. Markham, Ont.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Cashier 구함
Downtown(토, 일) 전화: 461－5242

지렁이잡이 하실분 구함.(동부지역) 오후 5시에서 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264－3758 (Mr. 최)

경험있는 Cashier Part Time 구함.
주 2일정도 (Jane×Finch 지역)
전화 : 665－3825 오후8시이전 연락바람

동양, 서양 음식점 동업기술자 구함.
7월1일부터 배달도 할예정. 운전면허증 있는 젊은사람
전화 : 274－7010 (Mr. You)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가게 Helper 구함. (남자)
Eglinton & Bathurst Corner
전화 : 787－6970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535－2798, 233－9454
781－9591 (저녁 6시 이후)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여권 분실

여권 분실
여권번호 : R 309356
발행일자 : 79년 7월
소지자명 : 홍정숙(동반자녀: 이준형(남),이시영(여))
분실날자및장소: 82년 1월23일 아리랑식당 뒷쪽 주차장
연락처: 335－0513 이상덕

여권번호: R 296574
발행일자: 1979년 4월 23일
소지자명: 김 익균
분실날자및 장소: University & Dundas(81년 6월경)
연락처 : 743－2373

구 직

저희 집에서 애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Jane & Finch) 전화 : 661－7891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Variety Store Special !
위치 : Oshawa Main St. 렌트 : $700
넓이 : 1250 sq.ft. 주매상 : $4,000 리스 : 6년
가격 : $39,000 + 스탁 (전부 현금요구)
9 door working cooler와 3 Bed Room Home 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모든 면허가 나와 있는 Restaurant(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 조건의 Rent와 Long Lease. 좌석: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656－9503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 있으신 분의 내방요망. 주중 9:00a.m~18:00p.m

이훈모 부동산
1) Variety Store 매매 (짧은 영업시간)
주매상: $4,000, 렌트: $850 리스: 5년+5년
아스킹: $40,000 (2 Bed Room 아파트 포함)
2) Donut Shop
주매상: $6,500 아스킹: $220,000
리스: 20년, 다운페이: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225－1204)
전화 : 225－1204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번화한 관광지역 안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성업중임.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
넓이 : 2000 sq.ft., 넓은 Parking장 있음.
아스킹 : $139,000 + 스탁. 년 순이익 : $46,000
그외에 2개의 아파트먼트로부터
일년 수입 약 $5,100
Irven DeGraw
691－6111 or 1－705－325－6193
Royal Trust Real Estate, Realtor.

가정 형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대단히 좋은 거주 지역안에 오랫동안
성업중이던 큰 Variety & Smoke Shop (in Etobicoke)
사업을 크게 일으킬수 있는 좋은 기회임.
Stan Konarzycki
전화 : 236－1871, 622－2365
Royal Trust Corporation

전망좋은 지역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호텔을 아파트먼트로 개조한 건물 팝니다.
(5 아파트먼트 & 1 Store)
자세한 문의는 전화 : 846－0800 (Hogg)
Royal City Realty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 매매"
Discount Variety Store
주매상: $3,000. 현 영업시간은 8시간이나 앞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할수도 있음.
962 St.Clair Ave. W.
전화 : 654－4410 Vatale

Cash Register Sharp
ER－2533 전화: 364－7943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Bungalow for Sale (Private Sale)
써브웨이에서 가까운 에그린톤과 베더스트 지역. 7 룸, 큰 리크리에이션 룸, 다용도실등.
관심 있으신분 오셔서 보십시요.
전화 : 783－7954

"급 매"
세탁소와 Bakery(Plaza안에 있음).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4020 Dundas St. W.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영업시간이 짧은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000
전화 : 531－1155 낮 12시 이후 연락바람.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조지)

꽃집매매. 조그마한 자본으로 이윤높은 꽃가게.
바쁜 지역으로서 Parking장도 있음.
가격 : $7,900. 전화 : 698－9188 (마이클)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하우스

(방 구함)
부엌, 화장실 있는 방 구함.
전화 : 921－1681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